

작은도서관, 코로나 시대를 관통하다



목 차

여는 말 -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5
코로나19와 작은도서관의 도전 -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상임이사 안찬수	8
작은도서관의 비대면 운영사례 - 담작은도서관 관장 김성란, 작은도서관 웃는책 관장 김자영	12
보고 있어도 보고픈 그대 - 과학저널리스트/작가 신성욱	34
코로나 시대, 비대면 분투기 -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38
'좌파'로 삼시다 - 도서평론가 이권우	86
안녕, 작은도서관 -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이사장 백영숙	90

‘작은도서관 휴폐관수 증가, 개관 작은도서관 수 감소. 작은도서관 운영 심각한 상황’

코로나19 이후, 작은도서관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더 많이 언급되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한 번도 맞닥뜨린 적 없는 코로나는 작은도서관에 전대미문의 타격을 줬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책을 읽어주며 책나눔을 했던 작은도서관, 우리가 읽은 책을 널리 알리고 즐겁게 나누고자 다양한 독서 활동을 했던 작은도서관, 지역과 폭넓게 교류하며, 독서문화의 중심에서 굶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던 작은도서관은 문을 닫거나, 대출 반납만 하는 최소한의 활동을 이어가며 명맥을 유지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회원들과 만나서 고민을 나누고, 서로를 응원하거나, 머리를 맞대고 회의하는 것마저 어려웠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작은도서관의 비대면 운영’은 간절함에서 시작됐습니다.

작은도서관은 이용자, 지역과 함께 만들어진 작은도서관의 고유한 독서문화를 이어가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비대면’을 선택했습니다.

비대면 활동은 작은도서관에게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주었습니다.

화면으로나마 만나니 좋았고, 함께 읽으니 행복했습니다.

지역의 경계를 뛰어넘었고, 새로운 시도도 해볼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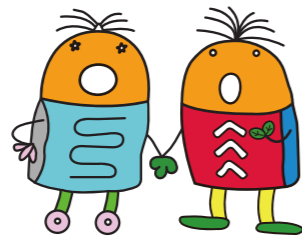
그렇지만, 비대면의 분명한 한계도 있었음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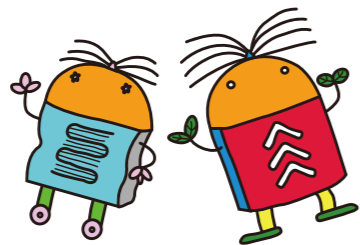
이 자료집은 작은도서관의 좌충우돌 비대면 사례이자 분투기이기도 합니다.

작은도서관의 선택, 용기, 성과, 고민을 담았습니다.

작은도서관의 비대면 서비스 사례가 작은도서관이 가는 길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자료집을 읽으시면서 함께 고민해주세요.

작은도서관의 고군분투를 응원해주기 위해 기꺼이 응원의 글을 보내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와 작은도서관의 도전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상임이사

안찬수

코로나19와 작은도서관의 도전

책임사회문화재단 상임이사 안찬수

감염병 시대를 함께 이겨내는 일

지난 2021년 11월 1일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 글을 정리하고 있는 오늘, 12월 6일에는 다시 사적 모임의 인원을 줄이고 방역 패스 적용 시설도 늘린다고 합니다. 많은 이들이 백신을 맞았으니 바이러스가 조금 수그러들 거라고 기대했는데,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다 하고, 감염자도 늘어난다고 하니 걱정입니다. 이 끔찍한 역병(疫病)의 시대를 견디고 이겨 내기는 쉽지 않은 일일 듯 싶습니다.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의 사무국에서 보낸 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2020년 예고 없이 찾아온 코로나 사태로 더 이상 예전같이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도 그에 맞게 각종 사업설명회, 결과발표회, 포럼 등의 사업을 온라인으로 전환해 진행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런 저런 고민도 많이 했고 몰랐던 부분을 공부해보기도 하면서 고생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남겼던 발자취를 기록으로 남겨 비대면 시대를 의미 있게 보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 작은도서관 현장에서 이루어진 비대면 운영사례를 소개 및 정리한 내용을 자료집으로 만들 예정이며 책자로 발간하려고 합니다.”

반가운 편지였습니다. 어떤 분이 글을 썼는지, 어떻게든 코로나 시대를 이겨내고 계시는지 궁금했습니다. 도서관, 그것도 다른 도서관이 아니라 ‘작은도서관’의 현장에서 어떤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지, 독자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극복하기가 쉽지 않은 감염병의 시대이지만, 우리가 이 시대를 견뎌내고 있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그것을 함께 읽으면서, 서로 힘을 주고받는 일 자체가 무척 소중한다고 생각합니다. 값진 활동을 펼치고 꼼꼼한 기록을 남겨주시는 분께, 고맙다는 말씀, 고생하셨다는 말씀, 힘내시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뭣이 중한디? 뭣이 중하냐고?”

작년 초, 우리나라에서 한참 코로나 확진자 수가 생겨날 때의 일이 기억납니다.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19가 발생한 이후, 우리나라에서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서 전 세계에서 거의 두 번째로 확진자가 많았을 때였습니다. 도대체 이 감염병은 어떤 병인가가 궁금해서 인터넷을 온종일 뒤져보던 때였습니다. 그때 만났던 글 가운데 제 눈에 띄는 글이 한 편 있었습니다. 제목을 사투리로 번역하자면, “뭣이 중한디? 뭣이 중하냐고?”라고 할 수 있는 글입니다. 2020년 3월 25일, 스위스의 소식을 전하는 영문 매체 ‘스위스인포’에 세르지오 로씨(Sergio Rossi) 프리부르대학 경제학과 교수님의 의견을 전하는 글이었습니다. “Coronavirus: What is essential?”

로씨 교수는 팬데믹 상황에서 공중보건을 위해 ‘본질적이지 않은 활동’을 중단한다고 각국이 조치를 내리고 있는데, 과연 인간에게 ‘본질적이지 않은 활동(non-essential)’이란 무엇이고, ‘본질적인 활동(essential)’은 어떤 것인가를 묻고 있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식료품을 구한다거나 의약품을 구하는 ‘필수 활동’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봉쇄하곤 하는데, 과연 인간에게 육체적 건강을 챙기고 생존을 유지하는 것만이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활동이냐? 과연 그런가? 하고 묻고 있었습니다. 로씨 교수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위기 상황을 통해 개인이나 사회에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간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로씨 교수의 문제 제기를 접하면서, 과연 책임기와 도서관 활동은 인간에게 ‘본질적인 활동’인가라는 질문을 던져 보았습니다.

이 책자에 묶인 여러 사례는,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책임기를 멈추지 않으며, 우리의 도서관 활동은 지속되고 있음을 웅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임기와 도서관 활동이야말로 우리가 단지 육체적 건강과 생존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교류하면서 새로운 정보와 지식과 지혜를 구하는 존재임을 드러내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코로나19가 가로막고 있는 장벽을 넘어서서 새로운 도서관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한 분들이야말로 K-방역의 영웅처럼 K-도서관의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기는 기회이며 전환점입니다

위기(危機)는 위험과 기회입니다. 위기가 닦혔다는 것은 위험에 빠졌다는 말도 되지만, 다른 한편 기회가 생겼다는 말도 됩니다. 이 말은 어려움이 닦쳤다고 주저앉지 말고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영어의 ‘crisis’라는 말은, 질병이 한창 진행될 때 회복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인지를 판단한다는 그리스어(krisis)에서 나온 말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전환점, 결단 등의 뜻을 품고 있다고 합니다. 동서양이 모두 위기를 비슷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도서관이 휴관과 제한적 운영을 반복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도서관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초 미국 전역의 거의 모든(98%) 공공도서관이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을 맞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지난 2년 동안 도서관 운영자들이 보여준 창의성과 헌신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팬데믹 시대에 맞게 도서관 서비스를 새롭게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감염병으로 말미암아 더 간극이 넓어진 지식정보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도서관이 단지 책을 비롯한 도서관 자료를 빌려주고 받는 곳이 아니라 지역사회 공통 공간 속에서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것이며,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따뜻한 관계망을 만들어온 곳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이 점은 우리나라 작은도서관이 오랜 기간 힘을 기울여온 점입니다. 이 책자를 통해 우리는 도서관의 근본적인 본질과 지향을 확인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작은 듯 보이지만, 결코 작을 수 없는

오늘날은 분명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팬데믹뿐만 아니라 기후 위기처럼 전 인류가 함께 힘을 쏟아야 겨우 해결할 수 있는 위기가 우리 눈앞에 닥쳐 있습니다. 이 책자가 소개하고 있는, 작은 듯 보이지만 결코 작을 수 없는, 창의적인 노력과 헌신의 사례는 이런 미증유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밑거름일 뿐만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의 씨앗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언급하는 것은 성급한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코로나 시대를 관통하면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한 것이 우리의 도서관 문화에서도 하나의 전환점이 되리라는 점입니다. 이 책자는 바로 그 전환점의 한 양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모두 건강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뿐만 아니라, 새로운 선택과 결단을 통해 우리 도서관 문화의 '작은 듯 보이지만, 결코 작을 수 없는' 전환점을 만들어내는, 작은도서관의 도전이 계속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의 비대면 운영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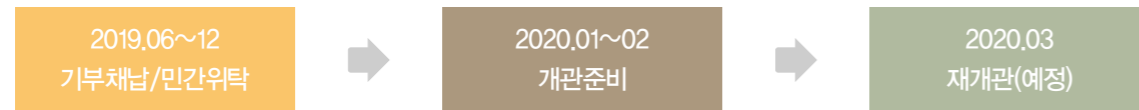
1. 코로나19와 도서관 :
우리는 무슨 생각을 했고 무엇을 하고 있나?
2. 웃는책 비대면서비스 사례

담작은도서관 관장 김성란
작은도서관 웃는책 관장 김자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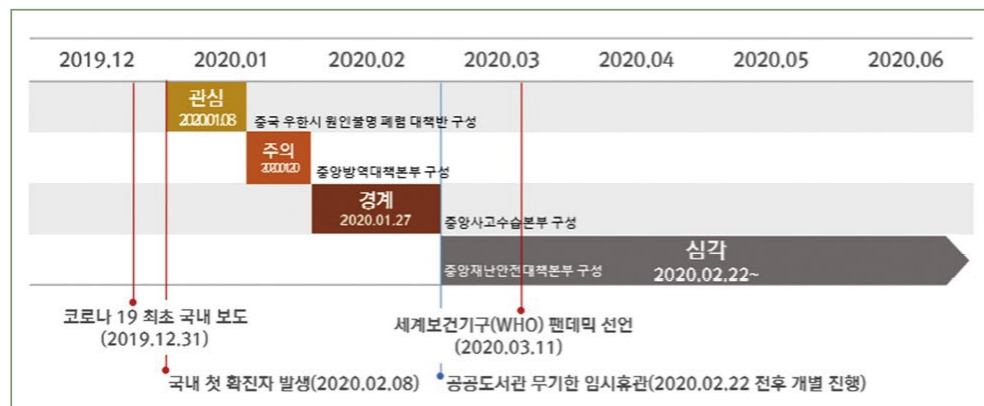
코로나 19와 도서관 : 우리는 무슨 생각을 했고 무엇을 하고 있나?

담작은도서관 관장 김성란

담작은도서관은 2008년 10월 개관 이후 2019년까지 (재)도서관화재단 씨앗에서 운영했으며, 2019년에 춘천시에 기부채납하여 춘천시립공공도서관이 되었고 현재는 책으로 꿈꾸는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위탁 운영한다. 위탁 운영이 결정된 후, 2020년 1월부터 재개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19가 발생했다. 재개관 준비를 하며 날마다 뉴스에 집중하며 되뇌인 말은 “좋아지겠지..?”, 사태가 심각해지자 “개관은 할 수 있을까?”로 바뀌었고 한숨만 쉬었다. 지금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도서관을 닫은 적이 없었던 우리는 사람들이 담작은도서관을 잇는 것은 아닐까 불안하고 초조했다. 2월에 개관하려던 계획을 수정하여 3월로 연기하였지만 3월에도 개관을 할 수 없었다.



<그림1> 담작은도서관 현황



<그림 2> 박태연·오효정 (미디어 이슈를 통해 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도서관 서비스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1(3), 251-279, 2020

도서관 재개관 준비의 주된 일은 도서관리프로그램을 코라스로 통합하여 자료DB 수정 및 RFID 작업을 하는 것이었다. 계획과 달리 작업을 빨리 마치게 되어 생각할 시간이 많이 생겼다. 코로나19는 점점 심각해졌고 ‘예전처럼 도서관 서비스를 할 수 없겠구나, 아이들을 도서관에서 보는 것이 힘들겠구나, 아이들의 독서 격차가 더 심해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리해야했다. 막연하지만 예전처럼 할 수 없다면 오히려 이런저런 서비스를 실험적으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니 언택트(untact), 온택트(ontact), 포택트(fortact) 등 다양한 개념들이 생겨나고 집콕, 집관, 집콕, 홈트 등 우리 일상 문화도 그에 따라 변화되고 있었다. 한번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없었지만 도서관은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곳이란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도서관의 방향성을 책 읽는 즐거움이 있는 도서관, 경험을 나누고 배울 수 있는 도서관으로 정하고 발걸음을 뒀다.

1. 책 읽는 즐거움

친구야, 나한테 책 읽어줄래?는 책 읽기에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 이제 막 스스로 책 읽기를 시작하고 재미있는 그림책을 더 많이 읽고 싶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책과 인형이 함께 들어있는 꾸러미를 대출하여 내가 좋아하는 친구에게 하루 15분 동안 큰소리로 책을 읽어주는 독서프로그램이다.

도서관에서 인형을 쪼르르 앉혀놓고 책을 읽어주는 아이들이 늘 있었다. 가만히 들어보면 제법 재미있게 이야기를 들려준다. 책을 읽어주는 행위가 곧 놀이인 셈이다. 순천기적의도서관과 해외 도서관의 강아지에게 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을 접하고 오랫동안 우리 상황에 접목 가능한 방법을 고민해왔다. 순천기적의도서관 사례는 해외 사례와 비교했을 때 지속성이 떨어지고 소수 참여라는 아쉬움이 있었다. 지속적으로 많은 어린이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싶었던 우리는 아이들에게 직접 만든 형겁인형을 책 친구로 제공하기로 했다. 인형도 동물들처럼 아이들에게 좋은 책 친구가 될 것으로 믿었다. 독서할때마다 자신감이 떨어지고 책을 멀리하던 아이, 책 읽는 게 서툰 아이가 틀리게 읽어도 책 친구는 웃거나 혼내지 않기 때문에 책 읽는 즐거움을 온전히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2020년 학교조차 가지 못하고 집에서만 생활하던 1학년 아이들에게 무엇보다 효과적인 프로그램이었다. 어떤 아이는 한 인형에게 애착이 생겨 같은 책을 반복하여 읽어주기도 하고, 저녁에 시간을 내어 함께 읽는 형제, 자매도 있다. 앞으로 춘천관내 초등학교 대상으로 읽기 장애 등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들에게 서비스할 계획이다.

한 학기 한 권 읽기는 2018년부터 학교독서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초등학교 4학년~6학년과 자유학년제로 운영되는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도서관 견학프로그램으로 운영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십대 어린이

와 청소년을 도서관으로 이끄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코로나 이전에는 매년 80학급 정도 참여하여 학교, 교사, 학생들과 책 읽는 즐거움을 함께 나누었지만 2020년은 책상마다 투명 가림막이 설치되고 모듈, 토론 활동 및 학교 밖 시설을 단체로 방문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등교와 원격수업이 교차되는 정신없는 와중에도 도서관에서 제공한 자료와 책놀이 자료로 학급에서 프로그램을 시도하는 교사들을 보며 희망을 보았다. 시골 초등학교의 한 교사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교실에서 한 달 내내 소리 내어 책을 읽어주었고, 모 중학교에는 반 아이들이 각자 읽을 수 있도록 똑같은 책을 구입하여 지원하였는데 책읽기는 물론이고 모듈 활동까지 하는 것을 보며 교사의 역할이 중요함을 또 느꼈다.

분야	키워드	선정도서 (활동지&메이커키트 제공) *㉠ 기본도서 ㉡ 참고도서	기획
과학	에너지, 전기	㉠<블랙아웃> ㉡<밀양큰할매>	2020년
	인공지능	㉠<순재와 키완> ㉡<미래가 온다, 로봇>	2020년
사회	노동, 직업	㉠<아저씨, 진짜 변호사 맞아요?> ㉡<페퍼, 가로등 켜는 아이>	2020년
	동물권리	㉠<살롯의 거미줄> ㉡<돼지이야기>	2019년
	어린이권리	㉠<통조림을 열지 마시오> ㉡<네모 상자 속의 아이들>	2020년
역사	일제강점기-강제동원	㉠<검은 바다> ㉡<부끄러운 세계문화유산 군함도>	2021년
심리	마음-거짓말	<빨강 연필>	2019년
	형제-선과 악	<사자와 마녀와 옷장>	2018년

<표 1> 2021년에 제공한 한 학기 한 권 읽기 콘텐츠 현황

2021년에도 교사가 온전하게 책 한 권을 소리내어 읽어주며 반 아이들 모두가 책 읽는 즐거움을 맛보는 것은 어려웠다. 각자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학급수에 맞게 책을 지원하였다. 짧게는 30일, 길게는 40일 동안 역시 읽는 아이들은 읽었고 읽지 않는 아이들은 한 권을 끝까지 읽어내지 못하는 학급이 대체로 많았다. 함께 읽는 시간을 정해 놓고 매일 15분 읽기 기록장을 제공하여 활용할 것을 권해보았다. 시간이 지나며, 함께 읽는 시간과 읽을 책의 분량을 정해 놓고 조금씩 읽어나가며 책 한 권을 온전히 읽는 학급의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코로나 상황에도 전교생이 100명 미만인 경우,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견학도 가능했다. 한 초등학교는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아이들이 고른 책으로 50권을 대출해가고 있고, 한 학기 한 권 읽기 책을 학교에서 읽고 도서관을 방문하여 책놀이와 기타 체험활동을 한다.

50슈book+ing 챌린지는 우리 삶 속에서 이슈로 떠오르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영상과 책으로 만나고 그 책을 통해 다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 생각해보는 책 읽기 프로그램이다. 5가지 이슈에 관한 책을 읽고 관련 영상을 본 후 한 줄 소감을 남기는 미션을 수행하면 완료자에게 책을 선물로 제공했다.

본 프로그램에는 4가지를 적용해 보았다.

첫째, 어떤 책을 읽을 것인가? 사회적 이슈로 코로나, 교육, 퇴직, 노동, 미디어(가짜뉴스)를 주제로 정했다. 노동과 미디어는 청소년이 읽을 책도 함께 넣었다.



둘째, 누구와 읽는가? 혼자, 부부 또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친구와 함께, 동아리 등 다양한 형태로 자유롭게 읽도록 했다.

셋째, 책 이야기는 어떻게 나누는가? 답작은도서관 블로그에 한 줄 소감을 남기게 했다.

넷째, 자료는 어떻게 이용하는가? 책을 각각 10권씩 준비했으며, 도서관 방문대출, 우편택배, 구입, 타 도서관 대출 등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다.

그 결과, 이슈에 관한 책을 읽는 것에 매우 긍정적이었으며 참여자들은 <나는 퇴직이 두렵지 않다>와 <임계장이야기>를 가장 기억에 남는 책으로 꼽았다. 읽는 형태는 부부가 함께 읽은 사람이 많았고, 한 줄 소감 남기기를 부담 없이 수행했다. 자료이용은 우편택배라는 편리한 방법을 제시했음에도 90%가 도서관 방문대출을 선택한 것은 좀 놀라웠다. 추후 코로나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모두 우편택배로 서비스하여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그러나 택배비를 절감하기 위해 한 번에 두 권씩 배송한 것은 대출 기간(30일 동안)을 충분히 주었음에도 독자에게 부담감으로 작용했고 챌린지를 완료한 사람에게 보고 싶은 책을 골

라 선물로 신청하게 했는데 청소년들은 90% 이상이 신청하지 않았다.

2. 자료대출서비스

2020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전체 공공도서관의 97.2%가 휴관을 했으며 휴관 중 76.3%는 스마트도서관, 드라이브스루, 도서배달, 예약대출, 지역서점 희망도서대출 등으로 대출서비스를 제공하고, 디지털도서관을 통해 전자책, 온라인콘텐츠, 오디오북, 녹음도서를 제공했다. 문화행사를 취소 또는 연기하고 일부 자료실 운영을 중단하는 등 기타 조치들도 이루어졌으나 사이버 전시, 온라인으로 강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춘천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모두 처음 접한 팬데믹 상황에서 춘천 관내 도서관은 모두 휴관하였고 춘천시립공공도서관 8개관 가운데 시립도서관은 춘천시청에 설치한 스마트도서관을 통해 자료대출서비스를, 춘천교육문화관은 안심예약대출서비스를 비대면으로 시행하였다. 다른 지역처럼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한다는 시민들의 질타가 이어졌지만 위탁 운영과 정식으로 재개관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서관서비스를 시작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개관 행사 없이 4월 21일(화)부터 안심예약대출서비스로 운영을 시작했다. 네이버폼 또는 구글폼을 사용하여 신청받아 1인 6권을 대출하였다. 적극적으로 회원가입을 권유하고 대출자료는 물론이고 다양한 메이커 키트를 준비하여 손으로 만드는 즐거움까지 제공하고자 했다. 홈페이지에서 예약대출을 신청하면 1인 3권만 가능하기 때문에 더 많은 책을 원하는 이용자를 위해서도 그렇고 코로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안심예약대출서비스는 휴관 중에만 운영되는 시스템이 아니라 계속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홈페이지 기능 외에도 네이버폼, 구글폼 등을 사용하여 서비스하였다. 지금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일상적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판단에 독서소외계층을 위한 무료택배서비스로 전환하여 연중 시행하고 있다. 이때 이용자는 원하는 책을 신청하기도 하고 읽으면 좋은 책을 추천받기도 하는데 참고정보서비스 1:1 맞춤형 <당신은 어떤 책을 읽고 싶습니까?>로 서비스하고 있다. 언택트(untact)서비스에서 포택트(fortact)서비스로 이어진 셈이다.

3. 온라인으로 만나다

통신회사 및 IT기업은 앞서 재택 근무를 추진했고, 학교는 4월 9일에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이

개학하였고, 4월 20일에 온라인으로 학생 540만명이 개학했다. 또한 한시적으로 2월 말부터 6월 말까지 원격의료도 이루어졌다. 도서관도 예외는 아니어서 줌(zoom), 유튜브(YouTube), 밴드라이브, 인스타라이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작가를 만나고 책을 읽어주는 등 도서관 프로그램에 적극 활용하며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하였다.

온택트(ontact)도 준비해야 했지만 우리 도서관은 2년이 다 되어가는데 온라인 활동을 활발하게 하지 않았다. 아날로그를 좋아하는 측면도 있지만 초등학교 고학년이라고는 해도 지난해 발달이 많이 지체됐고 전 차시 화상 수업을 받다 보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컴퓨터 앞에 앉아 있기를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학교 현장에서 들려주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다. 아이들이 처한 환경이 이러한데 우리 도서관까지 온라인 홍수 속에서 아이들을 더 힘들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고 콘텐츠의 내용과 질을 고민했다.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도전할 만한 것들을 찾아 유튜브로 제작하기로 했다. 기획전시 <박세진의 종이접기>는 사진 전문가가 찍은 사진으로 영상을 만들어 온라인 도슨트 자료로 활용하였고, 손전등 등 ‘놀아볼LAB’ 메이커 키트 만드는 법을 영상으로 만들어 담작은도서관 유튜브에 소소하게 콘텐츠를 올렸다. 2020년 12월 ‘크리스마스 집콕파티’를 통해 재미와 긍정적인 요소를 확인, 온라인 프로그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운영하기로 하며 본격적으로 <가족과 유튜브로 즐기는 집콕놀이 시리즈> 제작을 시작했다.

- 첫째, 가족과 함께 하는 책 읽는 문화 만들기
- 둘째,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 셋째, 시민과 도서관을 연결할 것
- 넷째, 도서관다운 프로그램을 기획할 것
- 다섯째, 콘텐츠의 내용과 영상의 질- 최고를 지향할 것

집콕놀이는 팬데믹 시대를 맞아 온라인(유튜브) 콘텐츠로 많은 시민들과 관계를 맺고 소통하기 위해 시작한 즐거운 책 읽기와 문화예술통합프로그램으로 (사)텐스폰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스토리텔링, 공연, 체험활동을 기본 구성으로 사서가 매회 새로운 부캐릭터로 시민들을 만난다. 유튜브 방송을 통해 사서와 이용자가 만나는 경험은 반가움과 즐거움인 것 같다. 스튜디오로 변신한 도서관을 보며 사람들은 도서관을 추억하고 방송 후 도서관을 방문한다. 어른 아이할 거 없이 종종 래퍼 장금이, 제랄다 등 출연자를 발견하고는 친숙하게 이름을 부르고 이야기를 건네기도 한다. 도서관은 동시, 그림책, 환경 등 특정 주제의 책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사)텐스폰은 그 동안 유희진 트리오(플롯), 이아람/김

민영(대금, 거문고), 김이슬 트리오(재즈), 의 수준 높은 공연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춘천 시민들에게 제공했다. <나도 엘비스 의상실 디자이너>는 동시에 300가족이 온라인에서 최향량 그림책작가를 만났고, <래퍼 장금이는 떡볶이를 좋아해>는 춘천작은도서관협의회와 <제랄다와 거인의 플라스틱 제로 도전기>는 춘천작은도서관협의회와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춘천, 서울, 전주, 대구, 봉화, 제천, 제주도) 소속 작은도서관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공유하였는데 코로나 시대 온라인서비스의 좋은 점이라 생각한다.

도서관 이용이 쉽지 않은 시기에 집콕놀이를 시행한 결과, 도서관 사서가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시민들이 도서관을 신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았던 만큼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책을 읽고 놀이를 하며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한다. 2021년 하반기부터는 조금씩 일상을 찾아가는 듯 소규모로 행사를 진행하기 시작하여 문화예술계의 활력도 느껴진다. 2022년의 상황은 또 어떠할지, 지금 형태의 집콕놀이를 계속하는 것이 적절한지, 내년에는 운영 횟수를 줄이고 십대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콘텐츠 중심으로 운영해보는 것은 어떨지 등 여러 생각이 든다.

4. 도서관 프로그램에 대하여

현재 도서관 프로그램은 일회성, 연중, 연 3~4회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일회성 프로그램은 집콕놀이, 연중 프로그램은 '놀아볼LAB', 연 3~4회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열두달책소꿉놀이'가 해당된다. '놀아볼LAB'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오후 2시부터 5시, '열두달책소꿉놀이'는 콘텐츠 하나마다 최소 30일 동안 화요일부터 일요일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도서관에 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처음부터 그렇게 운영하지는 않았다. 변화가 필요했던 이유는 프로그램 참여에 인원을 제한하지 않았지만 시간은 정해져 있어서 관심이 있어도 그 시간에 참여하지 않으면 맛볼 수 없었다. 여러 도서관을 돌며 프로그램만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불편했고 도서관을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서비스를 고민하며 2018년부터 패시브 프로그램¹⁾으로 시행했다. '놀아볼LAB'은 운영 전담자를 두고 아이들과 친밀하게 소통하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열두달책소꿉놀이'는 사서가 기획한 책 기반의 콘텐츠를 어린이 혼자 또는 보호자와 함께 일련의 미션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이와 같이 운영했을 때 적게는 150명, 많게는 300명 이상 참여하고 아무 생각 없이 도서관을 방문했는데 즐길 거리가 있으면 로또 맞은 것처럼 좋아하고 즐겁게 이용한다.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책 읽는 즐거

1) 패시브 프로그램이란 개념은 2019년에 알았고 실제 우리 도서관은 그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 패시브 프로그램은 정해진 시간이나 진행 보조자 없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하는데 상림마을작은도서관에서 다문화 이해 패시브 프로그램, 은평구립도서관 2021년 공공-작은도서관 연계협력사업에서 프로그램에 패시브 단어를 사용했다.



▶ 놀아볼LAB - 달고나 만들기



▶ 놀아볼LAB - 동영상보며 양말 위방하기



▶ 놀아볼LAB - 뜨개질



▶ 열두달책소꿉놀이 - 담작은미용실



▶ 열두달책소꿉놀이 - 책 읽고 노는 모습

움과 다양한 재미를 제공하고, 처음 온 사람에게 오늘 경험한 것이 너무 재미있고 좋아서 또 와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오랜만에 온 사람도 변함없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돕고자 운영에 변화를 준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코로나는 강력했고 기후 위기 또한 심각하게 느낄 수 있었던 2020년이 아니었나 싶다. 언제든 도서관 문을 열면 바로 참여할 수 있게 여름을 주제로 열두달책소꿉놀이를 준비했다. 휴관 상태에 있다가 도서관 문을 열면 엄청 올 줄 알았는데 도서관을 찾는 사람은 많지 않았고 뜨거운 태양 아래 준비한 놀거리는 50일 동안 비가 오며 아예 시행할 수 없었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라져 버릴 수도 있는 것들에 대해 생각이 오갔다. 어떤 주제를 다루고, 어떤 재료들을 사용해야 하는지 도서관 프로그램은 어떠한지 책과 사람,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고민이 되었다. 단편적 체험으로 쉽게 싫증 내는 수동형이 되지 않고 나만의 방식으로 느끼고 생각하고 표현하는 능동적인 사람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경험을 확장하는 프로그램을 하고자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처음에는 나무의 씨앗, 열매, 잎 등 자연물로 무언가를 한다고 하자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지만 실제 활동을 하며 즐거움도 맛보고 길가에 피어있는 식물을 지나치지 못하고 자세하게 들여다보게 되었다는 이야기, 지금까지 누군가가 그려주어야만 하는 것으로 인식해 온 페이스페인팅을 스스로 해 보라는 미션 앞에 멍하니 앉아있다 그냥

가 버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혼자 그리다가 서로 그려주며 즐거움에 빠져 자리를 내 주지 않던 사람들, 코로나 시대에 이용자들을 더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며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다.

코로나 시대에 모든 도서관이 그렇게 걸어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사람, 장소에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도서관 생태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실적을 어찌지 못하고 벤치마킹 한다는 미명하에 경쟁처럼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는 것을 가져다가 시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5. 나가는 글 – 마을도서관에서 자라는 아이들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2022년이라고 얼마나 나아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속 변이되고 있고 지금은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으로 긴장 상태에 있다.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는 한 마스크 벗기는 힘들고 내년에도 비슷한 상황이거나 혹은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지도 모를 일이다. 우리 지역에서 해결되지 않는 대출 권수 증대, 상호대차서비스, 도서관과의 협력 등 문제 속에서 답답하고 고민도 끝이 없다. 도서관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더 준비하고 운영해야 할까?

코로나 사태가 2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효자동 주민과 담작은도서관, 학교가 서로 협력하여 마을의 미래 세대인 어린이와 가족에게 즐거운 책 읽기를 통해 독서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돕고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문화, 여가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돕는 등 도서관을 중심으로 복지서비스를 고민하며 무겁고 재미있는 발걸음을 땀다. 그중 역점 사업은 올해 태어난 아기와 가족에게 축하의 책선물을 주는 것이다. 선물을 줄 때 애착인형을 만들어 함께 주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도서관에 모였고 어두운 눈 비비며 인형을 만들고 있다. 이런 작은 움직임이 단초가 되어 도서관이 효자 마을의 교육의 장소, 문화커뮤니티 공간, 아이들에게 안전 기지가 되어주고 마을도서관에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잘 성장하길 꿈꿔본다.

웃는책 비대면서비스 사례

작은도서관 웃는책 관장 김지영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었고, 구청 지침이 내려와 휴관이 시작되었다. 문 닫아놓고 근무하는 상황이 답답해, 웃는책의 운영자 3명은 우리 셋만을 위한 책모임을 시작했다. 사람들과 책읽고 나누는 일이 좋아 이 일을 시작했던 우리지만, 그동안 리모델링이니 도서관의 별려놓은 일 하느라 내 책은 못 읽은 지 오래된 상태였다. 그나마 동아리모임에서 같이 읽을 때도, 그들을 위해 책을 선정하지 내 취향에 맞추긴 어려웠다. 모처럼 책도 직접 고르고, 당당하게 근무시간을 활용해서, 그것도 소리 내 낭독하며 읽었다. 모처럼 여유시간을 갖고 수다도 실컷 떠니 즐거웠다. ‘바로 이 재미 때문에 내가 작은도서관 일을 시작한 거였지.’ 라는 초심을 떠올리게 되었고, 그동안 지치고 소진되었던 마음도 재충전이 되었다.

작은도서관의 힘은 사람-운영인력-의 힘이고, 사람의 힘은, 함께 책읽고 나누는 수다와 일상에서 나눔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잠시나마 코로나의 불안도 있을 수 있었고, 이렇게 마음 놓고 수다 떨 수 있는 작은도서관이 멈추면 안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러던 중 코로나 방역을 위해 모든 기관이 휴관하는데 주력하고 있지만, 이러한 위기에는 시민들에게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이 꼭 필요하다는 신문기사를 읽었다. 작은도서관은 심리적 정서적으로 불안한 시민들에게 힘과 위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국가와 지역 사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 힘든 시민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곳, 도서관은 원래 그래야하지 않을까.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뭐라도 도서관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1. 비대면 대출반납 그리고 웃는책 사용법

먼저, 다른 도서관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조사했다. SNS를 뒤져보았고, 해외도서관에서 드라이브 스루 대출을 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학교도 못가고 외출도 못하는 분들에게 일단 책이라도 볼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몇몇 공공도서관의 경우 안심대출 등의 명칭으로 대출을 시작하기도 했다. 물론 공공도서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 예약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지만 우리의 도서관리 프로그램에 그런 기능은 없었다. ‘그럼 맨땅에 헤딩 해보지 뭐’ 라는 마음으로 웃는책 밴드를 활용하기로 했다. 대출을 원하는 분은 게시글로 신청하시라 했다. 밴드 글쓰기 권한을 전 회원으로

2020년 9월 22일 오후 2:15
4039 반짝대출 8권 신청합니다
(8권 반납 예정입니다)
나 하나로 부족해
선생님은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질판 앞에 나가기 싫어
학교에 간 사자
학교 가기 싫은 선생님
괜찮아 우리 모두 처음이야
나머지는 사서 선생님 추천해주세요



푸는 것이 살짝 겁나기도 했지만 비상시국이라 감수하기로 했다. 다행히도 장난하는 사람은 없었다. 반짝 대출을 시작하고부터는 일이 엄청 바빠졌다. 출근길부터 밴드 알림이 울리면 급하게 뛰어와서 먼저 답글을 남겨주고, 신청도서를 찾기 시작했다. 찾은 도서는 대출 처리 후 도서관 에코백에 넣고, 대출자 이름과 연락처 같은 것을 붙여두었다. 때마침 입학시즌이기도 했는데, 처음 학교 갔는데 입학식도 못한 친구들이 안쓰러워서 자원활동가들이 웃는책 독서통장을 만들어준 것과, 초등입학 어린이를 위한 도서목록 같은걸 끼워 넣어 주기도 했는데, 뭐라도 줄 수 있어서 뿌듯한 마음이었다. 대출권수가 50권이 넘는 날은 하루 종일 책 찾느라 숨을 헐떡거렸던 기억이 난다. 그래도 이 상황에 책을 빌려줘서 고맙다는 분, 음료수를 주시는 분들 덕분에 보람도 있었다. 책을 빌려주는 도서관이 있다는 입소문이 돌기 시작하고, 대출이 늘었고 밴드 회원도 늘었다. 웃는책 밴드는 반짝 대출 시작 전 회원 200여명에서 현재는 800명에 육박한다. 반짝 대출의 힘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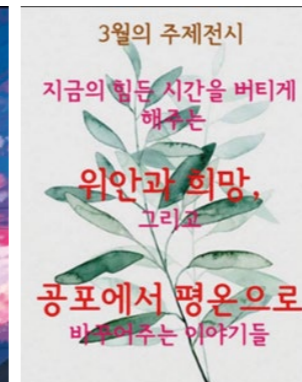
- 1대1 웃는책 사용법 안내



밴드를 통한 대출을 하다 보니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었다. 코로나 이전에 도서관에 들르시곤 하던 노인 이용자분들이었다. 가뜰이나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 밴드에 가입해서 대출을 하 시란 이야기는 높은 장벽일 수밖에 없었다. 안타까운 마음에,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회원가입, 밴드 사용, 홈페이지 사용 등을 알려 드리는 ‘웃는책 사용법’ 안내를 시작했다. 사서들이 한 분 한 분께 하나 하나 알려 드릴테니 안심

하고 들어오시란 이야기였다. 홍보물을 붙여놓고 얼마 후부터 가끔 들어와서 물어보시는 어르신들이 있었다. “정말 회원가입 하는 거 알려주나요? 책을 정말 빌려주나요? 들어가도 되나요?” 물어보시면 반갑게 맞아서 사서샘들이 하나 하나 알려드렸다. 그중 한 노인분과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되어서,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강좌 관련 책을 한 권 한 권 보시기 시작했고, 올해 가을에는 zoom도 배우셔서 강좌에 참여도 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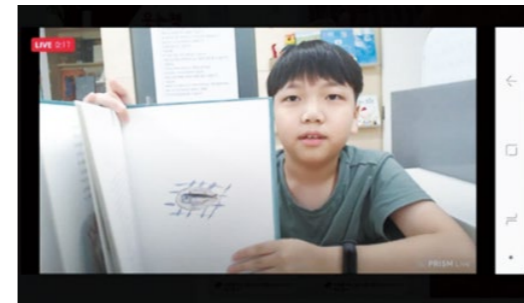
2. 비대면 전시



반짝 대출은 좋았지만, 또 하나 아쉬운 점이 있었다. 대출하는 분들이 실물 책을 볼 수 없으니 좋은 책을 고르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또 책을 대출하지 않는 분들에게도 책에 대한 소식을 알리는 일은 필요했다. 답답한 일상을 이어가는 이용자들을 위해 책 소식을 계속 알려보려고 했다. 온라인 도서전시를 시작한 것이다. 주제별 도서들을 카드뉴스로 제작해서 밴드에 올렸다. 코로나 사태 초반기에는 밴드에 소식이 올라오는 것만으로도 반갑다는 분들이 있어서 신이나서 더 열심히 올렸다. 온라인 전시 중 코로나로 인해 멈춘 ‘일상에 대한 책’, 코로나로 불가능해진 ‘여행에 관한 책’ 등이 반응이 좋았던 것 같다.

3. 비대면 문화프로그램

- 그림책 읽어주는 시간



다른 작은도서관들은 이 코로나 시국에 어떻게 지나나 궁금하던 중,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를 통해 대구의 한 작은도서관에서 밴드라이브를 통해 그림책을 읽어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용자와의 만남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림책을 온라인으로 읽어 줄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반가운 일이었다. 5월초 시작하기로 하고 책을 읽어줄 자원활동가를 모집했다. 누구나 집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가능한 일이라 어렵지 않았다. 자주 이용하던 분들도 아이들과 집에

서 하루 종일 시간 보내느라 답답하던 차에 잘됐다며 선뜻 품을 내주었다. 비대면 그림책 읽어주기는 먼 지역에서도 가능했고, 어린이들도 읽어줄 수 있었다. 긴 휴관으로 오랜만에 화면으로 아이들을 만나니 즐거웠고, 멀리 이사 가서 얼굴 본지 몇 달된 엄마가 그림책을 읽어줄 때는 다들 환호성을 지를 정도로 반가웠다. 그림책 읽어주기는 매주 2-3회씩 10여명의 자원활동가가 읽어주었고, 매회 10-15명씩 참여해서 올해 9월까지 2년 가량 이어졌다.

- 자원활동가들의 비대면 문화프로그램 : '창의미술', '책으로 놀자', '책이글' 등



그림책 읽어주기가 가능하다면, 그림책을 읽고 해보는 문화프로그램도 가능할 터였다. 코로나 이전에 그림책을 읽고 미술활동 하던 창의미술 프로그램, 책읽고 노는 <책놀자>, 책읽고 이야기하고 글쓰는 <책이글>도 비대면 활동에 나섰다. 첫 테이프를 끊은 창의미술 강사 스즈샘은 웃는책 설립초기부터 12년간 활동한 터줏대감이다. 도서관에 대한 애정도 남다른 분이 코로나로 아이들과 만나지 못해 답답해하던 중이었다. 밴드라이브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에, 이리저리 알아보더니 키트를 만들어서 미리 가져가게 하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창의미술도 밴드라이브로 한다고 알리자 정말

많은 아이들이 신청하고 참여하기 시작했다. 4회분 키트를 미리 제작해서 픽업만 하게 하고, 매주 라이브 방송을 했다. 미술 선생님은 진행을 하고, 게스트 한명이 직접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아이들은 라이브 방송을 보며 집에서 각자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었다. 지금까지 매주 1-2회 밴드, 줌으로 진행했고, 참여해 온 아이들은 300명이 넘는다. 창의미술의 사례를 보면서 다른 자원활동가들도 용기를 내 시도했고, 올해 워드코로나 이전까지 온라인으로 문화프로그램들은 매주 진행되었다.



- 비대면 작가와의 만남

2시간짜리 강좌를 온라인으로 가능하려면 휴대폰 카메라로는 어렵다. 휴대폰 카메라보다는 성능이 좋고, 우리의 예산범위는 넘지 않는 카메라 및 장비가 우리에게 필요했다. 고맙게도 한 사서샘의 부군께서 카메라 전문가셔서 저렴한 가격이면서도 성능이 좋은 웹캠을 골라주셔서 구매

했다. 또 라이브 방송을 위한 프로그램과 기능을 알려주시고, 프로그램도 잡아주셔서 시작할 수 있었다. 물론 마이크, 조명, 삼각대, 모니터 등이 있으면 더 좋은 화질, 음질로 선명하게 전달될 수 있지만, 우리 예산에서는 불가능했다. (삼각대는 사서샘 따님의 5천원짜리 삼각대를 기증받아 해결했다^^). 첫 강좌는 '나는별' 출판사 대표 김수현님의 <그림책 출판이야기>였다. 30여명 신청하셨는데, 처음 연결해본 웹캠이 음성과 화면을 제대로 전달할까 떨리는 순간이었지만 다행히 큰 어려움이 첫 라방을 끝마쳤다. 잘 마치고 나니 우리가 이 고생을 대체 왜했던 것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다. 그림책 강좌는 코로나 이전 2019년 10월 리모델링으로 휴관한 이후부터 8개월만이었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그림책 이야기에 온전히 몰입해서 나누는 시간을 얼마나 간절히 원했던가. 오랜만에 나는별 출판사 이야기 듣고, 그림책과 출판 이야기 나누고, 마침 방문했던 협회 식구들과도 모처럼 시끌 시끌 웃고 떠들었다. 이 모든 고생이 이 즐거운 만남을 위한 것이라면, 앞으로도 그것을 감수할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 이후에도 강좌는 간혹 방송이 끊기기도 하고 간혹 오디오 오류가 나기도 했지만, 좌충우돌하면서도 매달 꾸준히 이어져서 지금까지 2년간 20여회를 진행했다.

4. 비대면 독서동아리-웃책독, 온라인모임, 온라인낭독, 온라인책번개, 온라인토론편개

- 웃.책.독(웃는그림책토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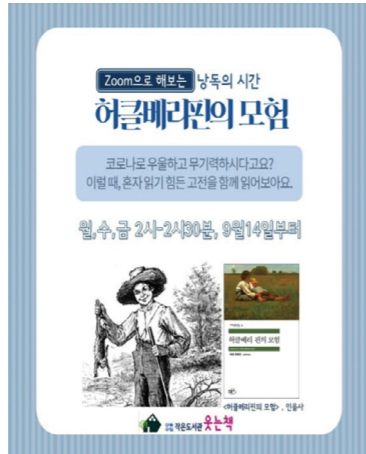


'마늘과썩이'이라는 8년된 그림책 동아리가 진행한 그림책 북토크이다. 동아리 모임이 불가능해진 것에 안타까워하던 멤버들끼리 수다 떨다 생각해냈다 한다. 진행자 1인과 게스트 1인이 3권의 그림책을 소개하는 30분짜리 그림책토크다. 사서샘 한분이 웹캠으로 찍으며 감독으로 나섰고, 게스트 섭외 등 온갖 실무를 맡았다. 게스트들은 '상상력', '몰입', '행복', '나답게살기', '스며들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등 9개의 제목으로 원고를 작성했다. 북토크를 진행할 동아리 회장님은 게스트들의 원고를 토크를 위한 대본으로 수정하고 편집했다. 유달리 긴장하는 게스트의 경우에는 리허설을 한번 거치고 촬영하기도 했지



만 대부분은 한 번에 촬영을 마쳤다. 촬영한 영상은 별다른 편집을 거치지 않고(우리엔 영상편집 능력은 없었다^^) 밴드와 유튜브에서 공개했다. 처음에는 부끄럽게 왜 공개하냐던 사람들도 막상 영상이 올라오니 즐거워했다. 코로나로 못 보던 회원들이 한명씩 게스트로 와서 오랜만에 만나니 좋았고, 각자가 꺼내놓은 진솔한 인생 이야기는 더욱 좋았다. 8년간 그림책을 함께 읽어온 내공은 생각보다 깊었다. 2020년 중반부터 월 1회 진행해서 9개월간 9명의 게스트까지 출연한 뒤 마쳤다. 그 이후에는 동아리 모임을 온라인으로라도 진행하자는 요구가 많아져서 현재까지 줌으로 그림책 동아리모임을 이어오고 있다. 이 북토크는 2021년 10월 대본을 모아 감독을 맡았던 샘이 직접 hwp로 편집해서 책자로 발간했고 현재 웃는책에서 대출가능하다.(물론 판매도 가능하다^^) 마늘과썩의 이 용감한 활동으로 그 이후 마늘과썩을 비롯한 웃는책의 5개 동아리들은 줌으로 모임을 이어오고 있다.

- 온라인낭독



그림책을 zoom화면으로 보는 것은 실물을 보는 것만 못했지만 소리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사서 3명이 코로나 초반기에 낭독으로 책읽기를 해본 결과, 온라인으로 낭독하는 것은 괜찮을 것 같았다. 게다가 코로나로 답답하고 불안한 이 시기에 좋은 고전을 낭독하면 도움도 될 것 같았다.

옛사람들은 항상 책을 소리내 읽었다고 한다. 소리내 읽는 것은 신체와 정신이 함께 읽기에 즐거움이 배가되고 몸으로 감응하니 내용을 더 잘 소화하게 되는 것 같았다. 또 직접 해보니 생각보다 내가 소리내서 읽는 재미가 쫓겼다. 모집해보니 10명 안팎의 사람들이 모였다. 처음에는 사서들이 중심이 되어 모집했지만 나중에는 좀더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했다. zoom을 통해 <허클베리핀의 모험>을 3개월 가량 읽었고, <열하일기>를 4개월 가량 읽었다. 특히 열하일기는 문장이 유머가 있으면서도 빼어나게 아름다워 다들 감탄하며 읽었던 기억이 난다. 낭독을 해보니 굳이 연령을 구분해서 읽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지금은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동화책을 낭독하는 모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양반전> <홍길동전> <돌집먹는 아이>를 읽었고 현재는 <세이강의 여름>을 읽고 있다. 한 권의 낭독을 마치는 매월 마지막 주에는 토론을 1시간

가량 진행하고 있다. 토론 역시도 연령 구분 없이 진행해 보니, 어른에게는 쉬운 언어로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경험이 되고, 어린이들도 좀더 진지하게 이야기하게 된다고 한다.

- 온라인책번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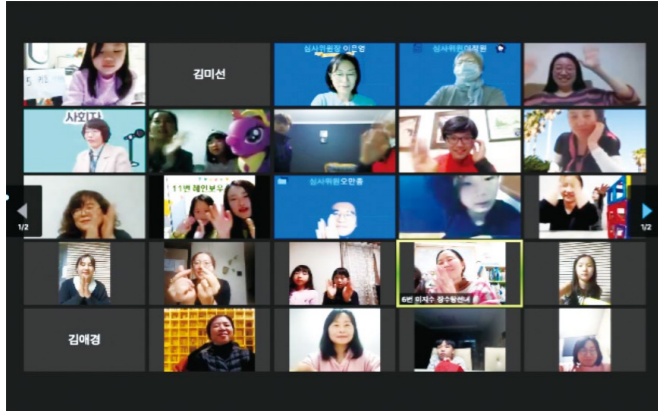


평소 책을 많이 읽는 비스0님이 혼자 읽기 어려운 벽돌책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그림 직접 제안해서 읽을 사람을 모집해 보라고 했다. 제안자인 비스0샘이 먼저 웃는책 밴드에 공지해서 사람을 모았다. 모집한 이후부터는 제안자가 매주 읽을 부분을 공지했고, 참여자들은 정해진 일정대로 읽은 후 댓글로 좋았던 구절을 남겼다. 좋은 구절이 많은 책은 댓글의 길이가 차고 넘쳤고, 7-8명만 댓글을 달아도 다 읽기 힘들 정도의 기나긴 글이 되기도 했다. 2021년 초반기에 시작해서 <진보와 번개> <코스모스> <축의 시대>, <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를 한 해 동안 읽었다. 하나의 벽돌책이 끝나면 같이

읽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zoom 낭독회를 한다. 낭독회의 하이라이트는 제안자가 선정한 '최고의 독자상' 시상식이다. 원래는 수고해준 제안자에게 책번개 한 번 할 때마다 한권씩 도서관에서 선물하기로 했던 건데, 제안자 분이 독자들에게 양보한 것이다. 최고의 독자상 선정 기준은 '가장 이 책을 사랑한 사람'이라 한다. 낭독회를 마치면 함께 읽었던 사람들은 흩어진다. 다음 책이 공지가 되면 새로운 멤버가 구성된다. 독서동아리의 새로운 형태라 할 수 있겠다.

5. 비대면 낭독경연대회

코로나 이전에는 매년 연말 송년회를 진행했는데, 신청자를 미리 받아 장기자랑대회 형식으로 했었다. 코로나 시대 송년회를 어찌할까 고민하다가 비대면으로 해보기로 했다. 다양한 활동을 경연하긴 어려워 보여서 당시 웃는책에 유행하게 된 낭독을 경연해보기로 했다. 이름하여 '방구석 낭독경연대회'였다! 사전에 경연자를 신청받았고 경연자가 확정된 후에는 참가자들을 모집했다. 4세부터 50대까지 15명이 신청했고, 그림책 낭독, 동시 낭독, 책 구절 낭독을 뽑았다. 30여 가족이 참여했으니 꽤 참석도 많이 한 셈이다. 화면으로 그림책을 낭독하는 사람도 있고, 글자를 보여주지 않고 소리만으로 낭독한 사람도 있었고 암송도 있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4분의 심사위원이 활약해주셨기에 모두에게 특별한 상이 돌아갔고, 인기상은 즉석에서 구글폼으로 투표를 해서 한 팀을 뽑았다. 하이라이트 행사는 주로 30여명이 이용자들이



선정한 '2020 올해의 이 책 이 구절' 포토영상이다. 한해 동안 가장 좋았던 책의 가장 좋았던 구절을 선정해 준것들을 모아 영상으로 만든 것이다. 청주에 거주하시는(^) 웃는책 최고의 낭독 여왕님께서 <웃는책이 사랑한 이 책 이 구절>을 낭독해주셔서 많은 박수를 받았다.

6. 비대면활동 총평

1) 전지구적 위기의 시대, 시공간을 넘어 공동체를 잇다

코로나로 도서관 운영 자체가 어렵던 시기에 도서관에 오지 못하던 아이들, 동아리 회원들이나 자원활동가들과 변함없이 만날 수 있었다. 많은 작은도서관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기존의 관계가 흩어지거나 사라질 것을 두려워했지만, 수많은 어려움에도 공동체는 이어졌다. 비대면 활동은 재난 상황에서 공동체를 이어갈 수 있게 했다는 면에서 고마운 활동이었다. 덕분에 남양주로 이사 간 동아리 회원이나, 멀리서 청주나 대구의 분과도 같이, 연령과 시공간을 넘나든 독서모임이나 강좌가 가능했다.

2) 낭독의 발견

지금까지 작은도서관 활동을 하면서 낭독을 경험해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알면 알수록 매력있는 낭독의 세계를 발견하게 된 것은 코로나 시기 비대면 활동의 주요 소득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웃는책 뿐 아니라, 많은 독서동아리에서 낭독 모임을 시작해서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영상 시대에 소리내 읽기의 발견은 우리가 잊고 살던 가치를 일깨워준 고마운 일인 것 같다. 코로나 이후에도 낭독, 운동, 낭송이나 필사 등 책의 텍스트의 가치를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활동으로 이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3)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생각,

작은도서관 동아리라면 주 1회, 2시간 가량, 7-8명 정도 인원이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든가, 자원활동가라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은 서로 얼굴 보아야 한다든가, 자주 오던 사람이 뜸해지면 섭섭하다든가.....하는 공동체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여지없이 무너졌다. 웃는책에서 경험한 비대면 독서동아리는 책 한권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한마디 대화 없이 댓글로만 소통하기도 하고, 3개월 동안 모르는 사람과 낭독만 하기도 한다. 너무 관계가 얽박하고 편의적이지 않나 걱정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지만 이 또한 멈추기 어려운 흐름이기도 하다. 코로나 이후에는 더욱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형식, 다양한 지역, 다양한 콘텐츠의 독서공동체가 필요할 것이다. 그렇다면 운영자인 우리들도 다양한 변화들을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태도가 필요할 것이다.

4) 그러나 비대면은 '보조'일 뿐

모두 공감하겠지만, 최근 비대면 활동에 지친 사람들이 많다. 비대면 활동은 편리하지만 서로의 에너지를 배가시키기보다는 감소시키게 한다. 코로나 이전의 관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비대면 활동을 이어올 수 있었지만,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비대면 활동은 기존 관계를 연장하는데 유용했지만,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데는 역부족일 수 있다. 많은 이들이 대면 활동을 목매어 기다리는 이유일 것이다. 그래도 불가피하게 비대면 활동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너무나 절실히 필요한 콘텐츠나 너무나 절실히 보고 싶은 관계여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력적인 '보조' 수단임에는 틀림이 없다. 코로나 이후에도 비대면 활동은 이어질 것이라고 많은 이들이 관측하는 것은 아마 그러한 이유일 것이다.

5) 새로운 책임은 일상을 준비하자

코로나 위기 초반기에는 코로나만 끝나면 다시 예전 같은 왁자지껄한 작은도서관의 일상으로 돌아갈 거라 기대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생각은 줄어들고 있다. 아울러서 작은도서관 운영방식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냐는 사람들도 있다. 이용자 연령층을 다양화하거나, 문화프로그램의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사실 그 어떤 것도 명확하지 않다.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가 했던 비대면 낭독이나 벽돌책 읽기로 보내온 시간들은 귀하게 느껴진다. 비록 비대면으로 진행한 활동이었지만, 새로운 변화는 운영자인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점, 그리고 책임은 일상을 작은도서관에 정착시키는 것은 언제나 강력한 힘이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었다.

6) 함께하는 작은도서관들은 위대하다

비대면 활동을 돌아보며 새삼 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에 감사하게 된다. 어떤 공공도서관보다, 어떤 큰단체보다 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의 대응은 빨랐다. 그리고 격려하고 힘을 주기 위해 세심하게 마음 써온 것을 회원도서관들은 잊기 어려울 것이다. 협회의 덕분에 소속 도서관들은 위기를 극복할 힘을 낼 수 있었다. 카메라, 조명, 마이크 등 특별한 장비 없이도 작은도서관들이 비대면 활동을 이어온 것은 아마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새삼 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와 소속 도서관들에게 감사드린다.



보고 있어도 보고픈 그대

과학저널리스트/작가

신성욱

보고 있어도 보고픈 그대

소셜 브레인_Social Brain, 내 결엔 반드시 누군가가 있어야 해

과학자리스트/작가 신성욱

새벽 6시, 아이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9시가 되어도 일어날까 말까 하던 아이입니다. 코로나19로 등교와 재택 수업을 반복하더니 어느덧 2학기도 저무는 연말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허둥했지만 이제 원격 화상 수업은 마치 원래 그랬던 것처럼 익숙합니다. 9시쯤 어기적어기적 눈 비비고 일어나 슬렁슬렁 대충대충 원격 수업을 해치우는 아이입니다. 제 딸내미는 올해 중학교 1학년입니다. 그랬던 아이가 지난 11월, 전면 등교가 시작되던 날 새벽엔 누가 깨우지도 않았는데 6시에 벌떡 일어나더니 서둘러 가방을 챙기고 옷도 고르고 화장품도 쏘끔 바르고, 그야말로 꽃단장을 했습니다.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올 가을 첫 등교 날 아침입니다. 난데없이 호들갑을 떨던 아이는 아침밥도 먹는 등 마는 등 일찌감치 학교를 향해 뛰어갔습니다.

작년 2월 말, 마침내 정부는 중대발표를 하기에 이릅니다. 모든 학교의 개학을 연기하겠다는 교육부 장관의 엄중한 대국민 발표였습니다. 연기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온 나라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지요. 그때만 해도 아이는 만세를 불렀습니다. 누가 철부지 아니랄까봐 온 나라가, 온 세상이 코로나 역병으로 발각 뒤집혔는데도 아랑곳없었습니다. 개학이 무기한 연기된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는 만세를 부르면서 꺽충꺽충 춤을 춰 댕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록 코로나 역병은 사라지지 않았고 재차 삼차 개학이 연기됐습니다. 그때부터 아이는 한숨을 지었습니다. 꽃피는 5월, 어김없이 개나리 진달래는 흐드러졌습니다. 아이는 거의 우울증에 빠질 것처럼 무기력, 그야말로 무념 무상의 경지를 넘나들었습니다. 입만 열면 “학교에 가고 싶다, 학교에 가고 싶어, 학교에 가고 싶다구!!” 노래를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학교가 문을 닫았다고 좋아할 땐 언제고, 이젠 또 학교에 가고 싶다고 난리번덕을 부리고 있으니 말입니다.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의 번덕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 아이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집집마다 줌이 쭈서 죽겠다는 아이들의 아우성이 들려 옵니다. 그런가 하면 선생님들도 이제 나저제나 아이들이 보고 싶다고 하십니다. 처음엔 모두들 당황했지만 이제 원격 수업도 익숙해졌습니다. 매일매일 얼굴을 볼 수도 있고 목소리도 들을 수 있고 심지어 선생님들은 화상으로 별을 주기도 하십니다. 그런데도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싶다고, 친구가, 선생님이 보고 싶다고 난리입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뇌에 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억 속에 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자, 번덕쟁이 인간의 뇌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지난 90년대 이후 뇌 과학이 크게 진전되면서 우리 인간의 뇌는 여러 가지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은 과학자들이 동의하는 뇌의 별명이 있습니다. 사회적 뇌_Social Brain이 그것입니다. 참 무뚝뚝하고 멧대가리 없지요? 과학자들이 쓰는 말이 대체로 그런 식이니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뜻은 이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크고 복잡하고 똑똑한 뇌의 주인공이 된 이유는 바로 ‘사회’를 이루어 협력하고 살면서 복잡해진 관계를 해결해 온 결과라는 겁니다.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부부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차마 떠올리진 싶겠지만 오래 전 그날, 그이를 떠올려 보세요. 처음엔 다 아는 것 같고 너무나 잘 통하는 것 같아서 ‘신이 보내 주신 선물이야!’ 감동하고 흥분해서 결혼이라는 무모한 결단을 덜컥 내려버리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 안다고 생각했던 ‘그이’는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 20년이 지나면서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인간’으로 속절없이 변해갑니다. 급기야 ‘저 인간은 알다가도 모르겠어’라고 고백합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가장 작은 사회인 가정, 그 중에서도 단 두 명으로 이뤄진 부부라는 관계도 세월이 지나고 산전수전 겪게 되면 관계의 내용, 양상이 변해갑니다. 살면서 생기는 필연적인 복잡한 일들을 마주해야 하고 해결해야 하고 때로는 가슴 깊은 곳에 묻어야 할 때도 있지요. 게다가 살아간다는 건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불안의 연속입니다. 이 대목에서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무엇인가는 고스란히 우리 뇌에 기억으로 새겨집니다. 그 일을 겪으면서 갖게 된 느낌들은 기억이라는 벽돌로 나의 뇌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벽돌이 쌓이면 집이 되지요. 과학에서 말하는 마음, 정신, 지능, 어쩌면 영혼이란 바로 이렇게 지어진 집을 가리킵니다. 좋은 마음, 정신, 지능, 영혼을 가진 사람은 좋은 느낌, 좋은 기억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물론 그 반대가 너무 많아 안타깝지요. 그러니 내 마음, 나의 지능, 영혼은 내가 지어 내거나 빚어낸 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 내가 갔던 장소들, 겪은 일들이 느낌을 자아내고 그 느낌이 기억돼 이뤄진 것입니다. 그러니 수 십년을 함께 산 부부만이 할 수 있는 ‘저 인간은 알다가도 모르겠어!’라는 푸념은 지난한 삶을 겪어내고 견뎌낸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고귀한 찬사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오래된 나무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상처투성이지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더 좋아졌습니다. 수형(樹形)은 더 아름답습니다. 열매를 주렁주렁 맺습니다. 넓은 그늘을 드리워 사람들이 그 밑에서 쉬어 갑니다. 온갖 새들과 못 생명의 천국이 됩니다. 오랜 세월 모진 풍상을 견뎌낸 결과입니다. 우리 인간의 크고 복잡하고 똑똑한 뇌도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우리 인간의 뇌를 특별히 사회적 뇌, 즉 복잡한 관계 속에서 형성된 뇌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크고 복잡한 사회를 이루고 살면서 술한 마음과 마음이 부딪혀 생겨난 복잡한 일들을 마주하고 해결해 나가면서 점차 크고 복잡하고 똑똑한 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다른 동물은 흉내 낼 수조차 없는 문화와 문명을 이뤄냈습니다. 크고 복잡하고 똑똑한 뇌가 빚어낸 놀라운 사건이죠. 내

곁에 누군가가 없었다면 그와 아무 일도 없었다면, 가정도 없고 학교도 없고 마을, 나라도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작고 단순하고 떨떨한(?) 뇌를 지닌 채 살고 있을 겁니다.

과학자들은 이렇듯 고귀하고 위대한 인간의 뇌를 칭송하기 위해 거창한 이름 즉, 사회적 뇌_Social Brain이라는 별명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못마땅합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했지만 무뚝뚝하고 멧대가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사회적 뇌의 주인공이래’ 이런 말을 들으면 막 설레고 막 떨리고 막 기쁘고 그러세요? 고개는 끄덕이지만, 글썽요 느낌은 별로입니다. 그래서 저는 Social Brain을 제멋대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무 길어서 다른 분은 아무도 쓰지 않고 저 혼자만 쓰는 게 좀 그렇지만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사회적 뇌란 ‘내 곁엔 반드시 누군가가 있어야 해’ 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누군가 있어야 하고 그와 무슨 일이 일어나 관계가 생기고 그 관계는 세월이 지나면서 더 깊어지고 더 복잡해지고 더 넓어집니다. 그 모든 일들은 순간순간 느낌을 자아내고 그 느낌은 내 몸에 전해지고 마침내 뇌에는 기억이라는 이름으로 차곡차곡 쌓여서 내 마음, 내 정신, 내 지능, 내 영혼을 이룹니다. 그러니 지금의 나는 바로 ‘내 곁에 있었던 그 누군가에게서 온’ 것입니다.

중학교 1학년 딸내미는 다시 집에서 원격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딸내미네 반만해도 백신 접종한 아이가 삼분의 일도 안된답니다. 그래서지 요 며칠 사이 한 반에서만 여러 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바람에 안타깝게도 재택 수업으로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아이는 저 혼자 책상 앞에 주그리고 앉아 하염없이 모니터 화면을 들여다봅니다. 선생님도 계시고 친구들도 보입니다. 하지만 열 세상 소녀들의 재잘거림, 왁자지껄, 까르르 까르르 웃음소리는 없습니다. 차가운 평면 위에서 숫자와 글자와 이미지들이 헛헛하게 오고 갈 뿐입니다. 딸내미가 그러네요. “친구들이랑 선생님, 보고 싶어, 같이 밥도 먹고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싶어. 학교 가고 싶다. 학교 가고 싶어. 학교 가고 싶다구!” 보고 있어도 손잡을 수 없고, 보고 있지만 품에 안을 수 없고, 보고 있어도 눈빛 마주쳐 주고받을 수 없으니 답답해 합니다.

당분간 보고 싶어도 만나고 싶어도 참아야 하는 날들이 더 이어질 듯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런 날들은 오지 않을 거라고 허풍을 떨기도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내 기억, 내 마음, 내 정신, 내 영혼은 늘 ‘내 곁에 있는 누군가’를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날은 꼭 다시 오고야 말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야 합니다.

‘나’ 역시 누군가에게 반드시 곁에 있어야 할 또 다른 ‘그대’ 이니까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바로 ‘그대’ 말입니다.

‘코로나 시대, 비대면 분투기’

-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의 비대면 사례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코로나 시대, 비대면 분투기

-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의 비대면 사례

협회의 일상에 비대면을 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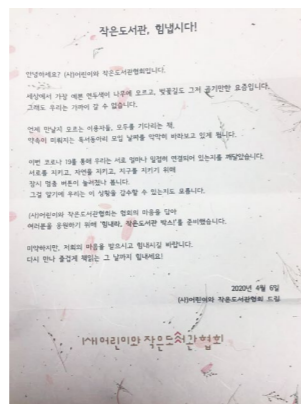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다중이용시설 및 작은도서관에 코로나 대응과 방역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아 협회는 대책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당장 협회 일상사업을 비롯해 주관 사업에도 차질이 생겼고, 작은도서관 현장의 문의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협회는 비대면을 위한 준비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분투기의 시작입니다.

1. 작은도서관 힘내라 박스

코로나19 확산으로 작은도서관에서는 개관시간을 단축하거나 휴관을 하는 등 도서관 문을 닫고 막연히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언제까지일지도 모르는 상황은 작은도서관을 멈추고 했고, 불안하게 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회원들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스크도 품귀현상을 빚을만큼 불안했던 그때, 협회는 고민 끝에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협회 회원 도서관에게 응원과 위로를 보내고자 기획된 '작은도서관 힘내라 박스'입니다.

▶ 작은도서관 힘내라 박스란?

코로나19로 지친 협회 회원 도서관에게 힘을 불어넣고자 제작된 선물 키트. 천 마스크 2장, 책 소독 티슈, 북스탠드, 달달한 간식 꾸러미, 응원의 편지글을 상자에 넣어 택배로 배송



“택배입니다!” 기사님 목소리를 듣고 달려가 받아 든 ‘작은도서관 힘내라 박스!’
 뜯어서 들어왔는 응원의 편지, 마스크, 책 소독 티슈, 그리고 초코렛 간식 꾸러미까지...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네요. ‘이대로 문 닫아야 하는건가... 그동안 해왔던 일들이 다 무너지고 마는 것인가...’ 힘들었는데 어쩌면 이렇게도 내 마음을 잘 알아주시는지...
 공감 가득한 글로 위로받고 있습니다. 힘 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서울지부 다운작은도서관 관장님의 글



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에서 회원 도서관들에게 ‘작은도서관 힘내라 박스’를 보내주셨습니다. 코로나로 국민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때.. 작은도서관 역시 후원은 줄어들어 걱정에.. 멈춰버린 여러 관계들, 모임들과 프로그램은 다시 재개될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그런때에 받은 박스! 우리와 격려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나무님의 글



눈물나게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모든게 얼어붙은 엄혹한 시절이 계속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용자를 만나기 힘들고 작은도서관을 지탱하는 외부 강제도 끝난 상황에 동지이며 작은도서관을 함께 꾸려가는 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에서 응원물품을 보내왔습니다. 살아야 한다고 살아만 살아야 한다고...

- 마을교육공동체 여주사람들 문화이장님의 글



▶ 작은도서관 힘내라 박스를 받은 뒤 회원들의 반응

2. 작은도서관 힘내라 박스 시즌 2

2021년에도 코로나19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심을 무너뜨리는 코로나19 확산, 방역지침 강화, 지역의 확진자 소식은 작은도서관을 힘빠지게 하기 충분했습니다. 협회는 '2021 작은도서관 힘내라 박스 시즌 2'를 기획했습니다. 이번에는 비대면으로라도 서로 얼굴보고 응원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스칸디아모스를 활용한 토피어리 만들기'를 주제로 줌으로 만나기 전 미리 회원 도서관에게 스칸디아모스 토피어리 제작 키트를 택배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줌을 통해 협회 회원들과 만나 <사라지는 것들 / 베아트리카 알레마나 / 비룡소> 그림책을 협회의 막내간사가 읽어드렸습니다. 김현실 서울지부장(서울 은행나무어린 이도서관)과 함께 토피어리를 만들고, 서로를 응원했습니다.

작은도서관 힘내라 박스 시즌 2

내 마음 토닥토닥

열심히 살아온 우리 자신을 위한 응원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좋은 기운을 함께 나누어보아요!

작은도서관 힘내라 박스 시즌 2

일시	2021. 10. 18.(월) 10:30 ~ 11:50	
형식	비대면 화상회의(zoom)	
신청	https://forms.gle/ye2bK1PyrDmgmSU48	

만들기 재료는 회원당 한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협의회도 한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시간	내용	진행
10:30-10:35	오프닝	협회
10:35-10:50	각 지부별 인사	지부장님들
10:50-11:00	책 읽어주는 막내	막내간사
11:00-11:30	스칸디아모스 활용한 토피어리 제작	김현실 서울지부장
11:30-11:40	소감 나누기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회원
11:40-11:50	협회 소식 안내 및 마무리	협회


문의 02-388-5933 / kidlib@hanmail.net

서울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

2021 작은도서관 힘내라 박스 시즌 2 구성



스칸디아모스, U자핀, 스티로폼볼, 화분, 이름표



▶ 완성된 스칸디아모스 토피어리

▶ 작은도서관 힘내라 박스 시즌 2 - 내 마음 토닥토닥 웹자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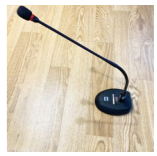


▶ '내 마음 토닥토닥' 스칸디아모스로 토피어리 만들기 유튜브 영상 QR 코드

3. 장비 구입 및 비대면 교육 실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이 이어지며 작은도서관은 휴관, 개관을 반복했습니다. 지자체로부터 지원이 줄거나,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여 이용자를 만날 수 없는 등 도서관 운영에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협회 역시 대면으로 기획했던 모든 사업 및 행사를 비대면으로 진행해야했습니다. 사실 비대면에 대한 대비는 협회도 없었습니다. 송출, 영상, 비대면에 대해 경험이 거의 전무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한계를 느끼고, 고민을 거듭한 끝에 결국 장비 구입과 교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1) 장비

이름	용도	구입기준	사 진
캠코더	동영상 촬영	UHD(4K)의 경우 가격이 훨씬 비싸지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HD(1080p)로 구매	
삼각대	캠코더 위치 고정	연동성을 고려해 캠코더 회사(SONY)에서 판매하는 삼각대로 구매	
콘덴서마이크	발표자 소리 녹음	초기 핀마이크로 구매했으나, 활용도가 높지 않아 추후 콘덴서 마이크로 재구매	
캡처보드	hdmi 케이블과 송출 노트북을 연결	시중에 판매하는 것은 큰 차이가 없어 저렴한 물품으로 구매	

이름	용도	구입기준	사진
hdmi-micro hdmi 케이블	캡처보드와 캠코더를 연결	케이블 선이 튼튼한 걸로 구매	
조명	송출 화면 개선	밝기 조절이 가능하고 저렴한 것으로 구매	
크로마키	송출 배경 변경	주로 송출하는 협회 교육실 크기에 맞는 규격으로 구매	
(음향)믹서	음향 세부 조절	협회 행사 규모에 맞는 크기로 구매(16채널)	
랜선	유선 인터넷 연결	되도록 긴 연결선으로 구매(10m)	

2) 교육

장비만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현장에서 잘 쓰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장비, 기술, 거기에 작은도서관 현장을 잘 아는 전문가가 필요했습니다. 협회는 '마을교육공동체 여주사람들'로부터 장비 기능, 사용 방법 및 온라인 송출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먼저 자주 사용하는 장비의 명칭부터, 세팅 방법, 촬영 기법 및 방법을 배웠습니다. 소리가 중요하다보니 주로 (음향)믹서에 대해 공부했는데, 모든 기능을 다 사용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송출은 협회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OBS 스튜디오 프로그램을 교육받았습니다. 기본적인 송출 방법과 어떤 장비를 연결했을 때 어떤 소스를 추가/조정하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만 워낙 변수가 많아 기본적으로 설정값을 맞추더라도 또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항상 실전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번의 리허설은 필수였습니다.

공부한 내용은 기록 프로그램 '노션' (<https://www.notion.so>)에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이후 물품 리스트 및 출장 갈 때를 대비해 챙겨야 하는 체크리스트도 작성해 기록했습니다. 아래의 QR 코드로 들어가면 협회가 노션에 기록해둔 출장 물품 체크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됩니다.



▶ 협회 영상 교육 실시(마을교육공동체 여주사람들)



▶ 협회의 출장 물품 체크리스트 QR 코드

Q. 협회는 송출할 때 어떤 장비를 쓰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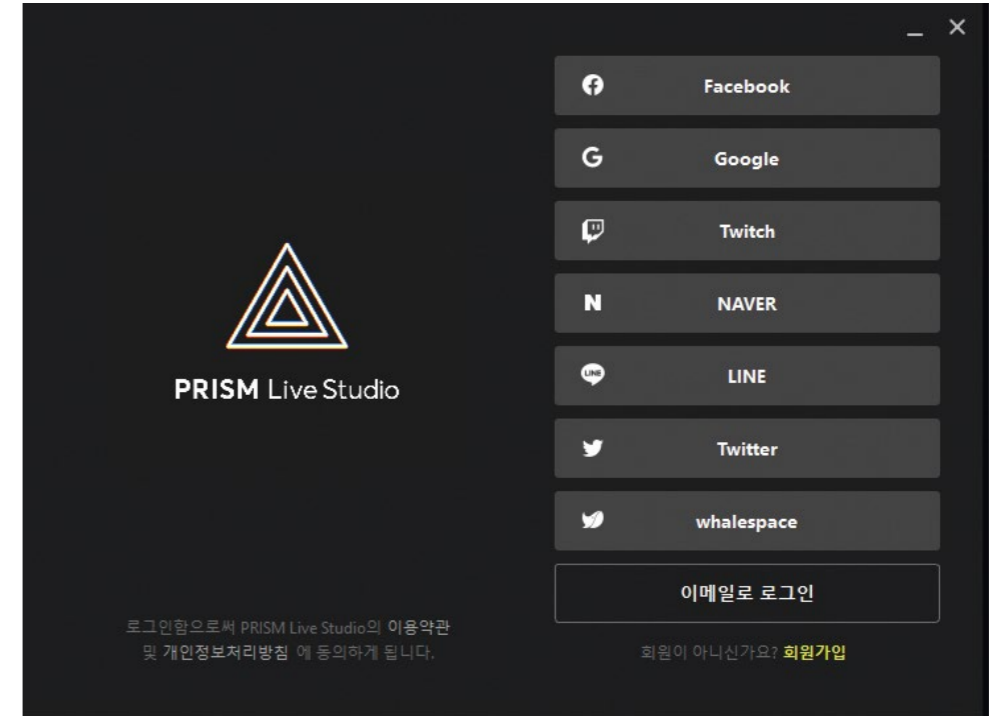
A. 송출할 때 필수로 사용하는 장비는 보통 노트북, 믹서, 마이크(+연결선), 캡처보드, 삼각대, 캠코더(+캠코더 충전기), 마이크로 hdmi-hdmi 케이블입니다. 협회가 출장을 가거나 할 경우 종종 장비나 부품을 잃어버리는 문제가 있어 책뵈 도배 스티커/협회 스티커를 사용해 장비에 부착했습니다.

Q. 협회는 어떻게 온라인으로 송출하나요?

A. 협회가 네이버 밴드 라이브를 할 땐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Prism Live Studio)를 사용하고, 유튜브 라이브를 할 때는 오비에스 스튜디오(OBS Studio)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프리즘과 OBS 둘 다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데, 이 두 프로그램은 촬영장비(핸드폰, 캠코더 등)와 영상/방송 플랫폼(네이버 밴드 라이브, 아프리카 티비, 트위치, 페이스북 라이브, 유튜브 라이브 등)을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난 2년간 수요가 늘어 사용 방법은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 많이 소개되어 있지만, 협회로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송출 플랫폼

플랫폼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	OBS 스튜디오
다운로드 URL	https://prismlive.com/ko_kr/pcapp/	https://obsproject.com/ko/download
QR 코드		



▶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Prism Live Studio)



▶ 오비에스 스튜디오(OBS Studio)

4. 비대면 상황을 헤쳐가는 길! 작은도서관의 소식을 널리!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1) 홈페이지 개편

각 기관 및 회사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중요 소식을 전하고,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기존 협회의 홈페이지에서는 이런 면이 약했습니다. 협회는 기금사업의 일환으로 홈페이지를 개편하기로 결정하고, 개편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마인드소다'와 함께 한 홈페이지 개편 회의는 총 7회에 걸쳐서 진행됐는데, 전반적인 홈페이지 구성, 들어갈 내용, 템플릿 및 상세 디자인, 기술 구현 등을 논의하는 내용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4월 드디어 협회 홈페이지를 정식 오픈했습니다. 협회 홈페이지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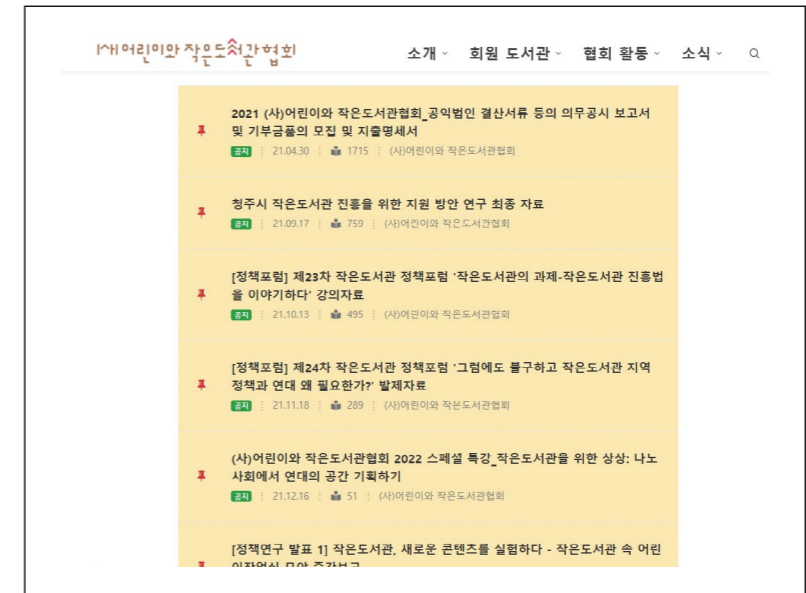
(1) 템플릿 변경

전체적인 템플릿이 바뀌었습니다. 밝은 분위기, 메뉴의 단순화, 협회가 하고있는 다양한 활동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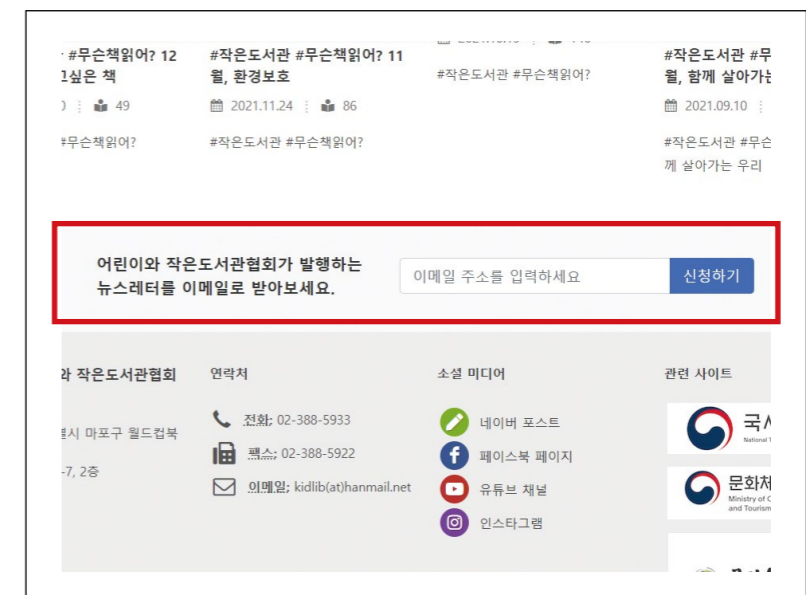
(2) 글씨 변경

기존 협회 홈페이지 글씨가 눈에 띄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글씨체를 바꾸고 크기를 키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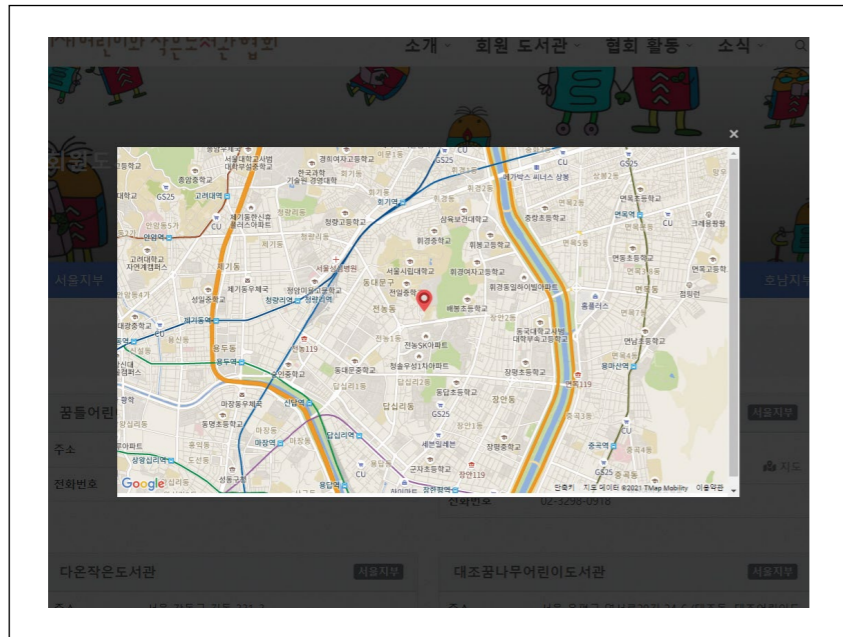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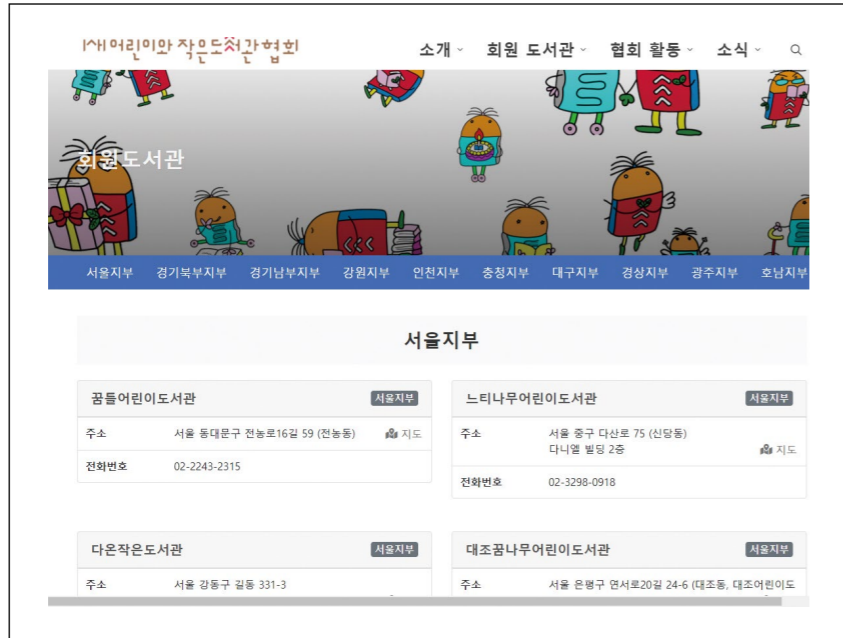
(3) 뉴스레터 신청란 삽입

협회의 뉴스레터 백열등을 쉽게 신청할 수 있게 홈페이지 하단에 뉴스레터 신청란을 삽입했습니다.



(4) 구글 지도 삽입

협회 회원도서관 목록에서 각 회원 도서관이 어디에 위치해있는지 바로 볼 수 있도록 구글 지도를 삽입했습니다. 주소란 오른쪽 '지도'를 누르시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5) 검색 기능

기존 협회 홈페이지에서 특정 게시물을 찾아보고 싶을때 검색 기능이 없어서 아쉽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 홈페이지에 검색 기능을 넣어서 원하는 정보를 쉽게 검색하게끔 변경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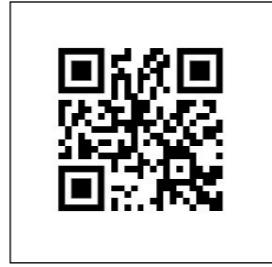
**검색시 맨 위쪽은 구글이 노출하는 광고가 뜹니다.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면 검색된 게시글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내용을 파악하게 하는 #가독성

누구나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는 #가시성

협회의 소식을 제일 #빠르게



▶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홈페이지 QR 코드

(6) 홈페이지와 SNS의 연동

협회는 홈페이지에도 각 SNS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삽입해서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연동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홈페이지 하단에서 접속할 수 있게끔 했고, 각종 게시물 내용에서도 SNS 링크를 추가해 연동성을 높였습니다.



▶ 각 게시물에 타 SNS 링크를 삽입해 연동한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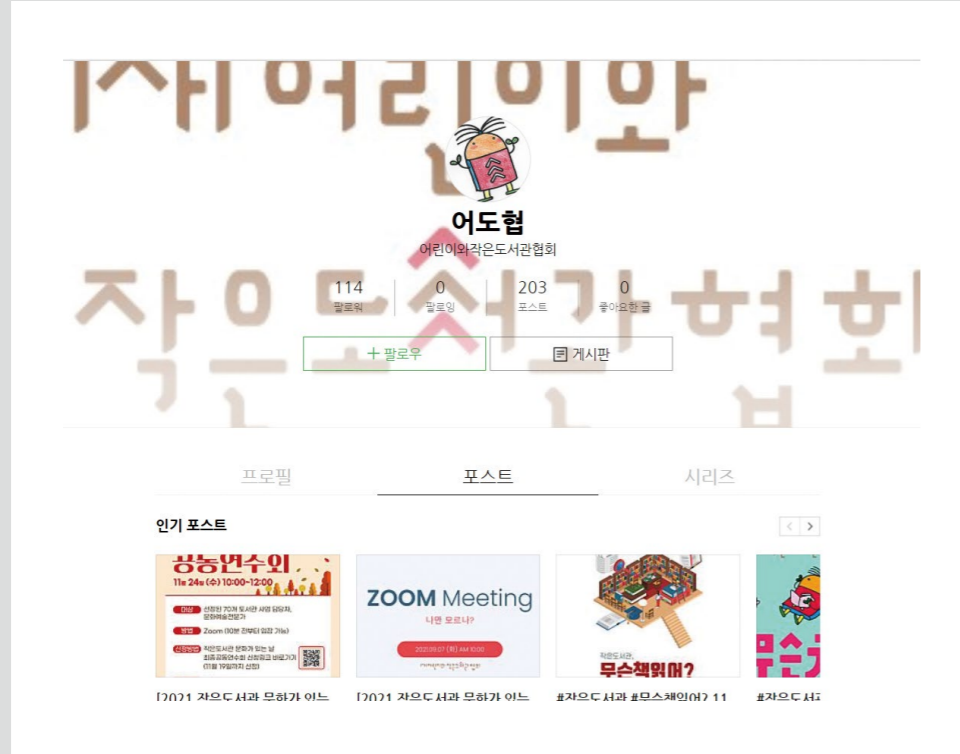
2) 모두에게 알리는 작은도서관 - SNS의 확대

협회는 작은도서관의 소식을 다방면으로 알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작은도서관 소식의 송출은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를 알리는 동시에 작은도서관을 알리는 것입니다. 또한, 작은도서관에게 다양한 플랫폼을 알리고 이용방법을 공유하고자 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를 위해 협회는 카카오톡 채널, 네이버 포스트, 유튜브 채널과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했습니다. 다방면으로 SNS 파이프를 늘리고 협회 내부만이 아니라 외부에 협회를 홍보하고 알리고자 만들었지만, 무리하게 늘린 것인지 나중에는 각 채널과 계정을 관리하고 연동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문어발식으로 확장하지 말고 삭제할 것은 삭제하되, 지금 있는 것을 유지해서 각 플랫폼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내용을 올리고 체계화했습니다.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가 운영하는 SNS

종 류	주 소
네이버 포스트	http://naver.me/xasyYyLD
유튜브	bit.ly/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채널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kidsmalllib/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smallliborg
모아 페이스북 페이지	http://naver.me/xtW7iKd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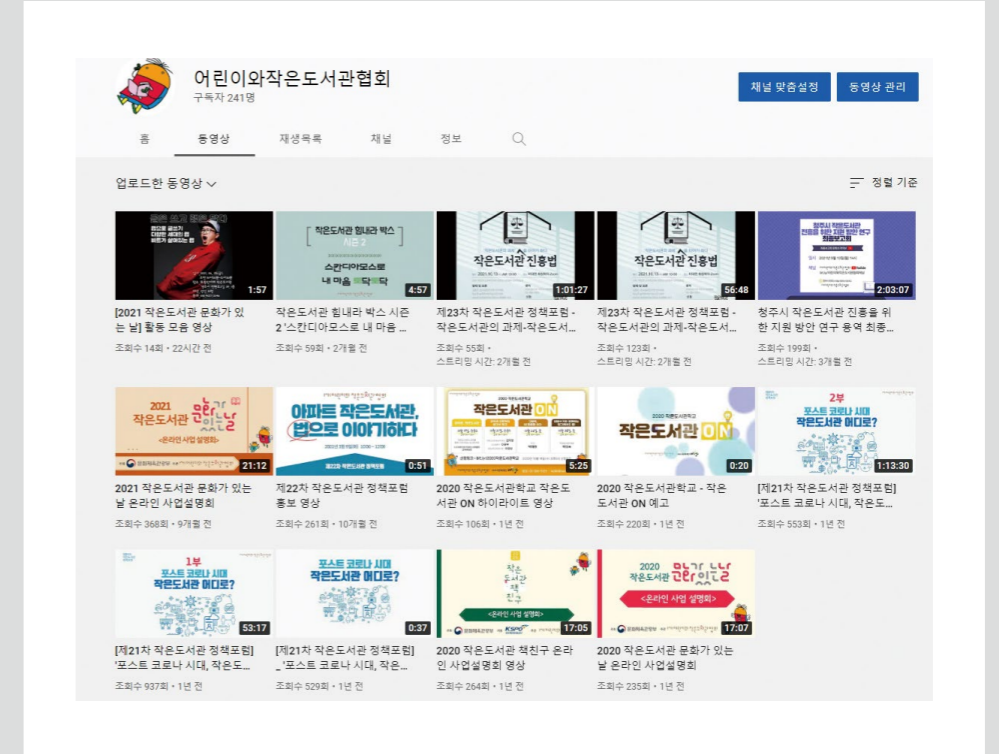
(1) 네이버 포스트



- 협회의 소식을 각 사업 단위별 네이버 포스트로 제작하여 홈페이지와 연동하는 양방향 소통 채널을 구성하고자 함.
- 시리즈 형식으로 각 사업별 게시글을 담당자가 작성 및 게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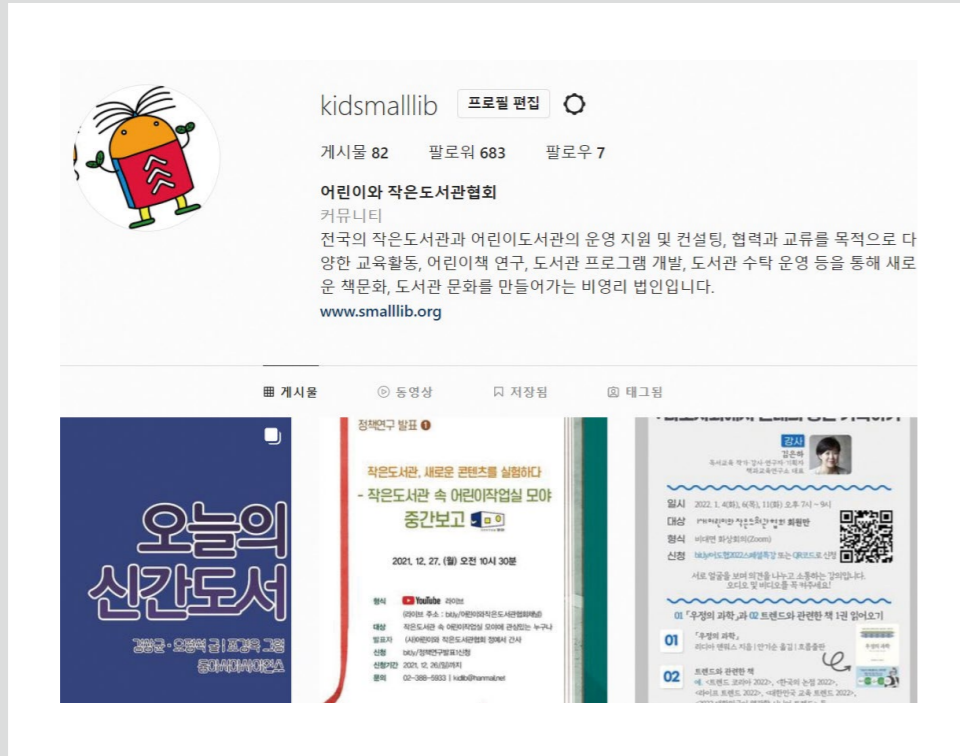
(2) 유튜브



- 웹사이트에 영상을 올리기가 번거롭고 크기 제한이 있어 동영상 사이트에 게시하기 위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에게 작은도서관과 협회를 알리기 위함.
- 각 사업별로 재생목록 생성 및 게시
- 영상 게시 시 영상 출연자에게 초상권을 허락받은 후 게시. 영상에 삽입되는 음악 역시 저작권이 없는 음악을 사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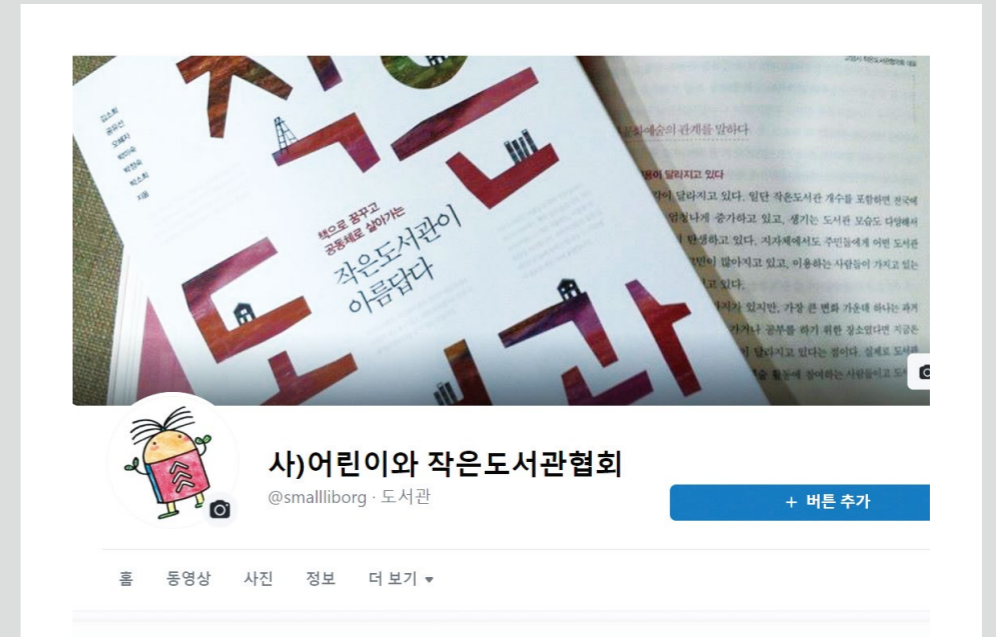
(3) 인스타그램



- 페이스북, 네이버 포스트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 특히 20대에서 40대의 연령층을 대상으로 협회를 알리고 홍보하고자 개설
- 정방형(1:1) 크기의 사진 위주의 피드를 게시해 페이스북과 차별화, 작은도서관 책친구 이벤트 등 다양한 활동으로 협회의 활동을 알리는 도구로 사용
- 다양한 해시태그를 이용한 홍보



(4) 페이스북



- 사람들에게 제일 친숙하고, 작은도서관의 주연령층인 40대에서 60대가 사용하는 페이스북을 통해 작은도서관의 활동을 알리고자 함.
-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여러 가지 내용을 게시하고, 타 SNS와 연동함. 또한 협회는 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페이스북 페이지와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작업실 모야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음.



잠깐만요!

협회의 카카오톡 채널과 다음 카페는 더 이상 운영하지 않습니다. 다음 카페는 자료 보관용으로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5. 이제는 익숙하지만, 한때는 낯설었던 줌(Zoom) 정복기

협회가 온라인으로 가장 많이 사용한 프로그램은 비대면 화상회의 줌(Zoom)입니다. 다양한 비대면 화상회의 프로그램이 있지만, 협회가 여러 시행착오를 거친 결과 접근성, 확장성면에서 줌이 제일 낫다는 평가가 있었고, 거의 모든 사업에서 줌을 사용했습니다. 줌은 협회뿐 아니라 작은도서관, 각 단체나 개인 모든 곳에서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말처럼 사용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줌 더 쉽게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 협회는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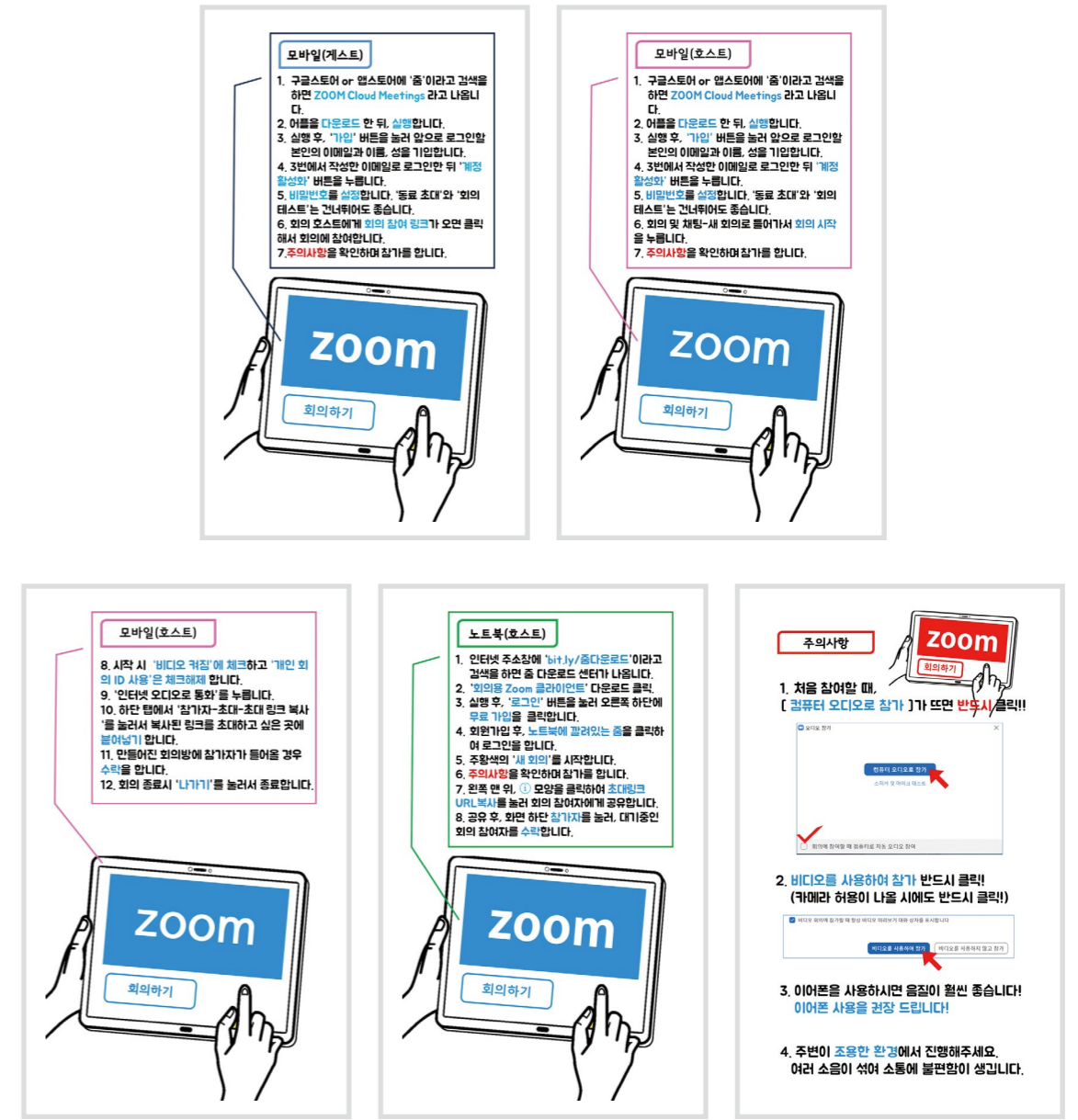
1) 화상회의 안내 카드뉴스 제작

줌 이외에도 구글 미트, 구글 행아웃, 스카이프, 네이버 밴드 등 각종 화상회의 플랫폼을 소개하고, 수요에 맞게 사용할 수 있게끔 사용방법을 카드뉴스로 제작했습니다. 제작한 카드뉴스 역시 공유, 배포했습니다.



2) 카드뉴스 제작

협회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보다 줌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체 카드뉴스를 만들었습니다. 카드뉴스는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한눈에 들어오게끔 하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제작된 카드뉴스는 회원들과 공유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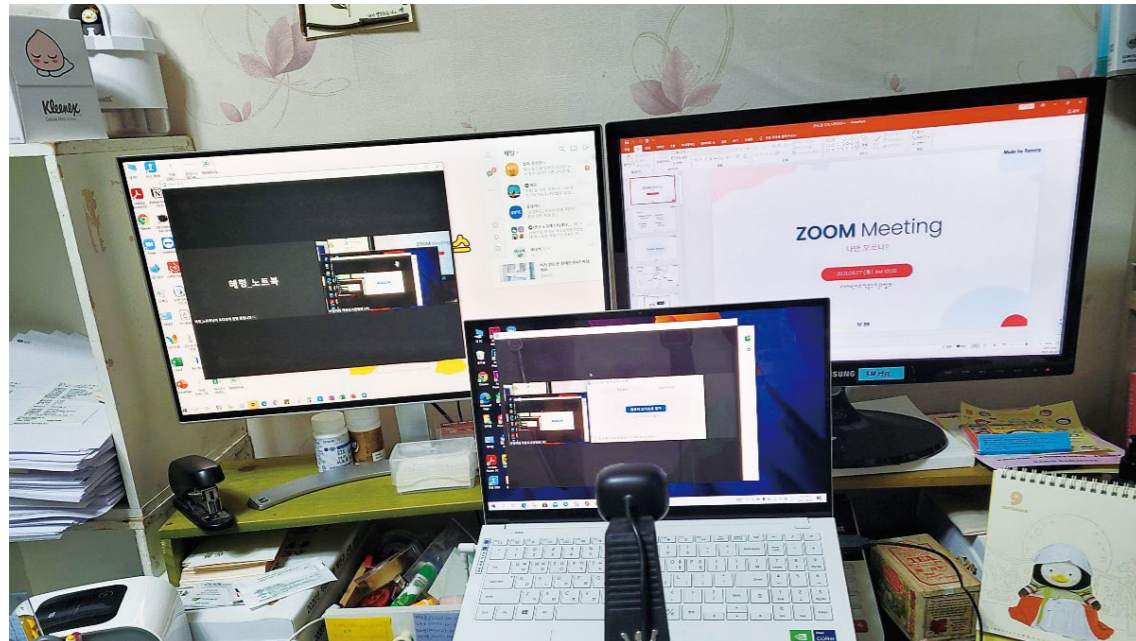


3) <줌, 나만 모르나?> 강의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이용하긴 하지만, 줌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작은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협회가 주관한 사업 중 하나인 '2021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에서도 비대면으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면 좋을지에 대한 문의가 있었고, 이것을 바탕으로 강의를 기획했습니다.

<줌, 나만 모르나?>는 참가자를 초대하는 방법, 공동호스트를 지정하는 방법, 핀/모두에게 추천(추천 비디오) 기능 사용 방법, 화면 공유 방법, 소회의실 활용 방법 등을 내용으로 실습을 포함하여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협회가 줌을 사용하며 터득한 팁도 알려드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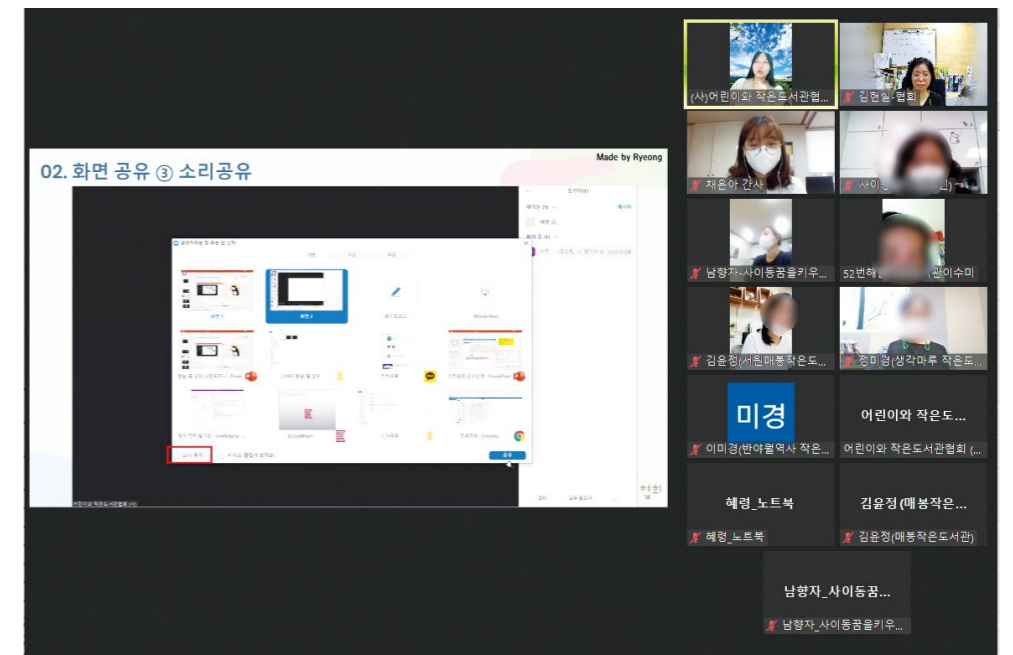
이후 요청이 들어오는 곳이나, 협회 회원도서관 네트워크(금천작은도서관협의회) 등을 대상으로 줌 교육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협회는 언제든지 도움을 드릴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경우, 연락주시면 됩니다.



▶ <줌, 나만 모르나?> 강의 준비 책상- 최상의 송출을 위한 노력



▶ <줌, 나만 모르나?> 교육자료 예시



▶ <줌, 나만 모르나?> 강의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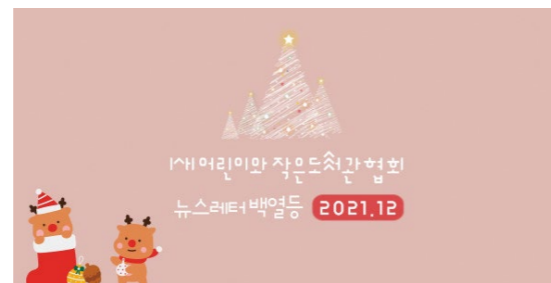
6. 백열등



백열등은?

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의 뉴스레터입니다. 느리고 깜박거리고 전기료도 많이 나오지만, 묵묵히 어두운 곳을 밝히는 백열등같은 작은도서관을 생각합니다.

협회는 2020년 7월부터 뉴스레터 플랫폼 스티비를 이용해 뉴스레터 백열등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백열등이란 이름으로 협회의 소식을 알리고 있었지만, 협회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와서 게시글을 클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협회는 스티비를 통해 각 회원 도서관 메일로 직접 메일을 보내어 협회 및 관련 단체의 소식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월 1회를 목표로 발송하고 있으며, 협회 회원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협회 홈페이지 리뉴얼 이후 외부에서 뉴스레터를 많이 신청해주셨습니다. 신청은 협회 홈페이지 하단에서 가능합니다.



▶ 현재 백열등 이미지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뉴스레터 '백열등' 신청하기
▶ 백열등 신청 QR 코드

7.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는 2019년 4월 23일 세계 책의 날을 기념해 시작한 캠페인으로, 각자 읽고 있는 책과 책 속 한 문장을 골라 협회로 보내면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형태로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도서관 이용자가 줄어들면서 책읽는 사람들도 줄어들자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도 진행하기 어려웠습니다. 협회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에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공유해주실 수 있도록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매월 주제를 정해 그 주제에 맞는 책을 읽게끔 안내해드렸고, 실제로 많은 회원분들이 주제별 책 읽기를 했습니다. 주제별 책읽기를 따라 현장에서는 북큐레이션도 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책 목록은 협회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공유했습니다.

2021년 주제별 책 읽기

월	주 제	필 진
3월	연대, 공감, 함께	늘푸른어린이도서관 관장 박소희
4월	여행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상임이사 안찬수
5월	만화	춤추는달팽이도서관 최선미
6월	음식	모당공원작은도서관 관장 김정희
7월	사랑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간사 정에서
8월	추리/스릴러	천개의바람 대표 최진
9월	식물/동물	경기도작은도서관협의회 (前)회장 최향숙
10월	예술	문화예술전문가 이송미
11월	환경보호	피스북스 대표 김소희
12월	다시 읽고싶은 책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사무국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상반기 키워드

- 4월은? 여행 **이제는 떠나고 싶어!**
- 5월은? 만화 **세모만(세상의모든만화)**
- 6월은? 음식 **#남남 #yummy**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새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2021년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3분기 키워드를 공개합니다!

- 7월 **키워드: 사랑**
두근두근 로맨스
- 8월 **키워드: 추리/스릴러**
#수수께끼 #미스터리
- 9월 **키워드: 식물/동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새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2021년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4분기 키워드를 공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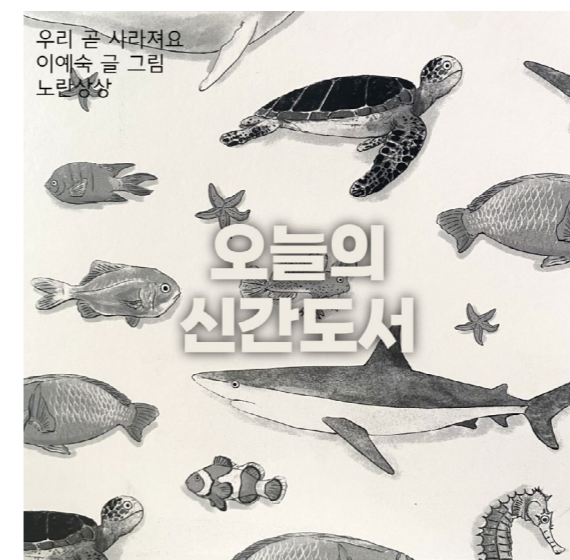
- 10월 **예술**
세상을 바꾸는 예술
- 11월 **환경보호**
SAVE THE EARTH!
- 12월 **다시 읽고 싶은 책**
2021년을 돌아보며..

▶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키워드 제작 이미지

8. 새 책이 나왔어요! - 오늘의 신간 도서 홍보

작은도서관은 책읽는 공간입니다. 협회는 협회로 발송된 신간 도서를 협회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페이지)에 소개합니다. 소개할 책의 디자인과 비슷한 색감이나 글씨체 또는 책 속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아, SNS에 올라갈 썸네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SNS에 올리는만큼 저작권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제작 전 미리 출판사에 연락해 책 내용의 일부분을 사용해도 되는지 허락을 구하고, 이미지를 사용해도 된다고 하면 추가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9. 비대면 온라인 정기총회 진행

매년 1월 진행되던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의 정기총회 역시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실무진을 제외하고는 모두 줌에서 모였습니다. 줌에서 만나니 오히려 평소 얼굴 보기가 어려웠던 분들도 만날 수 있어서 좋았지만, 백 여명에 가깝게 줌 참여 인원이 많아지자 영상을 재생하거나 화면 공유를 할 때는 화면 송출이 원활치 않기도 했습니다. 그 원인이 줌에 참여한 인원이 많아서인지, 영상 크기가 커서인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이렇듯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고, 해결하는 과정도 쉽지 않은 않습니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온라인 총회 준비는요!

코로나19를 계기로 각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의 총회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는 총회 개최 방식, 총회 의사록 인증 기준 마련에 대한 내용을 보도참고자료로 만들어 각 단체에 배포했습니다.

1. 비영리 법인 온라인 총회 상시적 허용

앞으로는 개인식별이 가능한 원격 통신 수단을 통해 총회 및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어, 오프라인 뿐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시민참여가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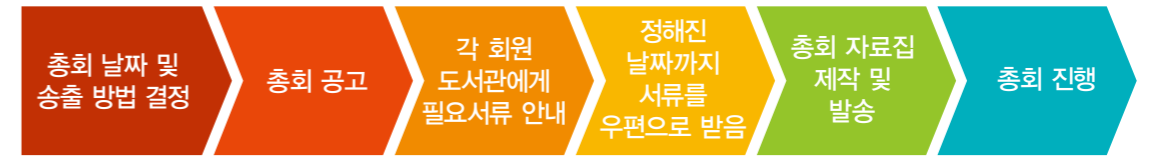
- 총회 개최 방식 등 구체 사안은 비영리법인 관리감독기관인 주무관청과 협의

2. 온라인 총회 의사록 인증 기준 주요내용 (법무부 유권해석)

관계 법령에 따라 온라인(화상) 총회가 허용되는 경우, **온라인으로 진행된 총회**에 대해서도 **아래 기준**에 따라 참석인증 방식으로 의사록 인증 허용

- 공증인은 온라인 총회 의사록 참석인증 시 **관계 법령 엄격 준수**
 - 의장 및 법인 관계자들이 화상회의를 진행하는 실제 장소(예:의장실)에 직접 참석하여 **온라인·오프라인 전반에 걸쳐** 총회 진행 및 결의 성립을 검사
- 공증인은 총회를 개최하는 **법인 측에서 참석자의 동일성 등을 적절한 방법으로 확인**는지 검사

총회 사전 준비 순서



TIP!

온라인 총회 준비는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작성한 내용을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1. [현장이슈] 온라인총회, '나만 힘들게 아니었네?!' 설문결과



2. [자료집] 비영리법인 온라인총회 제도개선 토론회



▶ 2021 정기총회

10. 기타

1) 자료 보관 및 백업

여러 가지 비대면 시도들이 있었던 만큼, 자료 보관에 대한 중요성도 커졌습니다. 특히 송출 후 해당 영상을 인터넷에 탑재하는 것 외에 파일을 어디에 소장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촬영 장비에 따라 영상의 크기는 달라지지만 보통 데스크톱이나 노트북에 저장할 경우, 용량이 부족해서 PC 속도가 느려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외장하드를 구입하고 따로 사업별로 저장하는 방법을 쓰고 있지만, 외장하드 또한 적정 사용기한이 있어 안전한 방법은 아닙니다. 자료 보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던 중, AWS(Amazon Web Services: 아마존 웹서비스)의 S3 Glacier를 알게 됐고, 이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Q. AWS S3 Glacier란?

A. AWS(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백업 전용 스토리지입니다. (S3와는 별개) Glacier는 '빙하'라는 뜻으로 '데이터를 빙하처럼 얼리고, 필요할 때 녹여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협회는 매달 사용한 용량만큼의 비용을 지불해 이용하고 있습니다.

파일이 자동적으로 클라우드에 백업되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가 직접 웹에서 파일을 업로드/다운로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로드한 데이터를 다운로드 할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비교적 자주 이용하는 데이터는 S3를 이용하고, 잘 이용하지 않는 오래된 데이터를 S3 Glacier에 저장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외국 사이트이기 때문에 접근이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웹하드에 비해 가격과 안정성 측면을 고려한다면 아주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협회 사업에서의 비대면 활용

1. 작은도서관이아름답다 시즌 2 기금

협회는 작은도서관의 성장을 돕기 위해 도서관문화재단 씨앗이 출연하는 '작은도서관이아름답다 시즌 2'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일환으로 교육, 정책을 도모하고자 작은도서관학교,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 정책연구, 정책포럼 등의 사업을 진행합니다.

1) 작은도서관학교

(1) 2020 작은도서관학교: 작은도서관 ON

작은도서관학교에서는 작은도서관에 필요한 실무, 인문학 등 관련 교육을 기획하고 진행합니다. '2020 작은도서관학교'는 '작은도서관 ON'이라는 주제로 작은도서관에서 필요한 실무, 인문학, 토크 등으로 구성했습니다. 네 번의 강의 중 두 강은 유튜브 라이브로, 나머지 두 강은 비대면 화상회의 줌(zoom)으로 진행되어 전국에서 모인 작은도서관 관계자들이 함께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비대면 강의는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 송출에 있어 주요 관건은 '소리'와 '인터넷 환경'입니다. 다수의 패널이 말할 때 마이크 소리를 잡는 것과 원활한 인터넷 환경이 유튜브 송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었습니다. 공유공간은 되려 와이파이 환경이 좋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2020 작은도서관학교'는 협회 사무실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소리'의 경우 '콘텐츠 마이크'를 '믹서'에 연결해 잡음은 줄이고 목소리만 더 깔끔하게 잡을 수 있도록 했고, '인터넷 환경'의 경우 사무실에 있는 '랜선'을 노트북에 연결해 와이파이보다 더 안정적으로 송출하도록 조정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비대면 행사 특성상 전문 업체(마을교육공동체 여주사람들)를 섭외하여 혹시나 모를 사고를 대비했습니다.

4강 '바람수기와 함께하는 업그레이드 줌!'에서는 주 강사와 협회 간사들이 각 소회의실로 들어가 참여자들에게 비대면 화상회의 줌에 대한 기초적인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자연스럽게 소회의실 기능을 배우고, 전체 대상 강의에서는 배우지 못했던 부분을 묻고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 2020 작은도서관학교: 작은도서관 ON 웹자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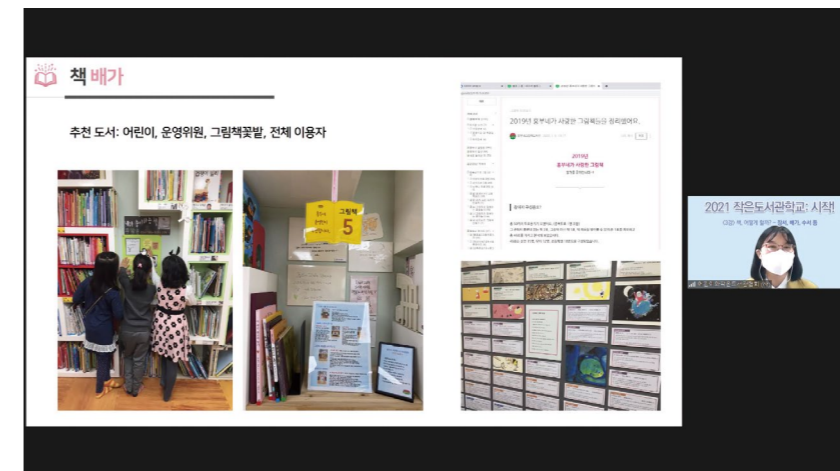
▶ 4강 <바람수기와 함께하는 업그레이드 줌>에서 강의 중인 협회 간사들

(2) 2021 작은도서관학교: 시작!

'2021 작은도서관학교'는 기초와 심화로 나누어 진행했습니다. '시작!'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기초는 작은도서관에 필요한 실무 강의 위주로 구성했고, 소통이 중요한 작은도서관학교 특성상 줌으로 진행했습니다. 강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질의 응답을 통해 강의가 풍성해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일시	주제	강사
4/26(월) 10:00~12:00	<1강> 달라도 작은도서관 - 관종별 운영사례	백영숙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이사장 송영순 (아름드리작은도서관) 김명희 (여우네도서관) 박민주 (성성푸른도서관)
4/27(화) 10:00~12:00	<2강> 동아리, 어떻게 할까? - 독서 동아리	박미숙 (책과도서관) 서영주 (책읽는사회문화재단)
5/3(월) 10:00~12:00	<3강> 책, 어떻게 할까? - 장서, 배가, 수서 등	김자영 (작은도서관 웃는책) 김진희 (흥부네그림책도서관)
5/4(화) 10:00~12:00	<4강> 스스로 고민하는 작은도서관 - 워크숍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교육위원회

▶ 2021 작은도서관학교: 시작! 웹자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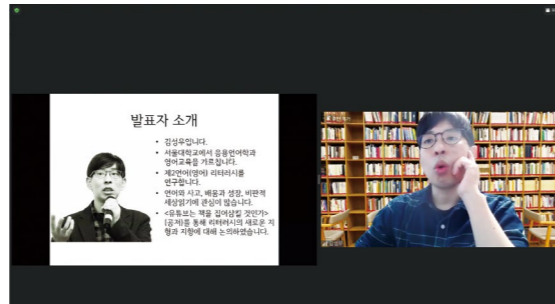
▶ 3강 책 어떻게 할까?
- 장서, 배가, 수서 등 중
흥부네그림책도서관 김진희

(3) 2021 작은도서관학교: 다시 또 시작

2021 작은도서관 학교 심화는 '작은도서관, 일상의 회복'을 주제로 총 6강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했습니다. 작년에 비해 이용하는 사람도, 강의하는 사람도 모두 줌에 익숙한 상황이어서 강의는 매끄럽게 진행됐습니다. 1회성 강의를 아닌 연속강의로 구성하여 작은도서관의 현장성을 반영해 강의를 업그레이드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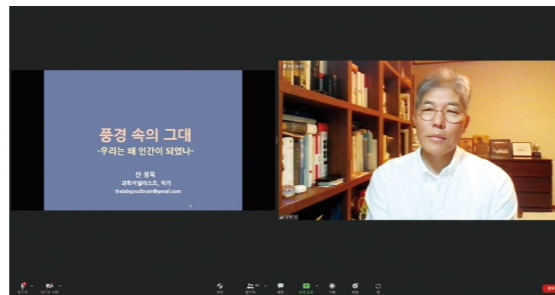
▶ 2021 작은도서관학교: 다시 또 시작 웹자보



▶ 1강 김성우 작가



▶ 2, 3강 은유 작가



▶ 4, 5, 6강 과학 칼럼니스트 신성욱 피디

2)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는 지역의 작은도서관 운영자 및 활동가 네트워크가 스스로 기획한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1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와 과거의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가 다른 점은 모든 행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각 단위별 진행도 비대면이 많았고, 중앙에서 진행한 사업설명회, 실사, 결과발표회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번 스스로 아카데미는 비대면으로 진행되어서 그런지 모든 단위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했을 때보다 참여자가 더 많았습니다. 아파트작은도서관 관련법을 공부한 단위의 경우, 천안, 울산, 세종, 성남 등 전국의 아파트작은도서관 관계자들이 모이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비대면이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온라인 진행의 한계도 분명했습니다. 각 단위를 직접 만나 소통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단위별 연대감도 이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사업설명회와 결과발표회도 줌으로 진행했는데, 오프라인에서 느낄 수 있었던 끈끈함, 정겨움은 덜했습니다. 똑같은 메시지를 전해도 단위별로 전달이 다르게 받아들여져 난감할 때도 있었습니다. 비대면 진행 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Q. 유료 줌 계정은 뭐가 다른가요?

A. 협회는 유료 줌계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줌에는 요금제가 존재합니다. 줌 미팅의 경우 총 4개의 요금제로 나눠져있으며, 줌 미팅 말고도 줌 폰, 줌 이벤트 & 웨비나, 줌 룸, 줌 유니티드 등의 요금제도 있습니다. 협회는 줌 미팅의 [프로]와 [비즈니스] 요금제를 사용중이며, 월간 청구와 연간 청구의 비용이 다르니 확인하시고 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간 청구가 더 저렴) 또한 환율 등의 이유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줌 미팅 요금제 (변경될 수 있음)

요금제	무 료	프 로	비즈니스	기 업
특징	-참가자 최대 100명 -최대 40분	-참가자 최대 100명 -시간 제한 없음	-참가자 최대 300명	-참가자 최대 500명 -클라우드 저장 무제한
금액	무료	\$149.90(연)	\$199.90(연)	\$240(연)

3) 정책포럼

(1) 제21차 작은도서관 정책포럼, 비대면 활동의 터닝 포인트가 되다.

협회는 작은도서관 현안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주제의 정책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정책포럼은 오프라인으로 진행했었지만 코로나19로 만날 수가 없으니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고심 끝에 협회는 비대면 포럼을 진행하기로 하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2020년 당시는 송출 장비나 인터넷 연결 등 모든 것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라, 마을교육공동체 여주사람들과 함께 포럼을 준비했습니다.

처음 진행한 유튜브 라이브는 예정된 시간에 송출하지 못했습니다. 송출 장소의 무선 인터넷(와이파이) 환경이 좋지 않아 OBS 스튜디오의 송출 속도가 너무 느렸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참여자 중 포켓 와이파이를 지참한 사람이 있어서, 포켓 와이파이를 사용했습니다. 그 덕에 정상적으로 송출할 수 있어서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제21차 작은도서관 정책포럼을 통해 코로나 시대에 작은도서관이 어디로 가야할 지 방향을 잡을 수 있었고 현장에서 이어진 작은도서관의 사례를 통해 코로나 시대의 희망을 말해줬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협회도 우여곡절 끝에 이뤄진 정책포럼 비대면 송출 성공으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비대면 행사 및 향후 정책포럼을 준비하는 계기가 되는 터닝 포인트가 됐습니다. 제21차 작은도서관 정책포럼은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유튜브 채널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 제21차 작은도서관 정책포럼

제21차 작은도서관 정책포럼

1세대 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작은도서관 어디로?

(사) 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의 제21차 작은도서관 정책포럼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작은도서관의 변화와 새로운 시도 등을 공유하고 미래 작은도서관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p>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0~10:05 진행순서 안내 • 10:05~10:20 개회사 • 10:20~10:50 특별주최 사 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이사장 기조강연 '포스트 코로나, 독서생태계는 어디로?' • 10:50~11:05 특별진행 사 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박성원 사장 '코로나시대, 작은도서관 분투기' • 11:05~11:20 발제1 사 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김자영 사장 '코로나시대, 뜻밖의 고생담' • 11:20~11:35 발제2 사 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오혜자 사장 '코로나시대, 송출기계를 대처하기' • 11:35~12:00 발제3 사 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김희영 사장 '코로나시대, 송출기계를 대처하기' • 11:35~12:00 질의응답 및 폐회 	<p>참가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20년 7월 6일 (월) 10:00~12:00 • 접속채널 주소: bit.ly/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채널 • 유튜브 라이브 시정은 정책포럼 당일 9시 40분부터 가능합니다. • Q&A 창을 통해 궁금하신 내용을 남겨주시면, 질의 응답시간에 논의 할 예정입니다. • 유튜브에서 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를 검색해주세요. <p>YouTube 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의: (사) 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02-388-5933)
---	--

▶ 제21차 작은도서관 정책포럼 웹자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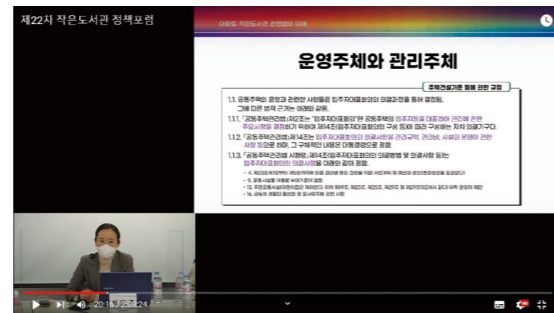
(2) 직접 송출로 진행된 제22차 작은도서관 정책포럼

제21차 작은도서관 정책포럼 이후 협회는 적극적으로 비대면 송출을 준비했습니다. 필요한 장비들을 구입하고 직접 송출에 도전 했습니다.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니다. 미세한 작동에도 설정값이 달라지는 탓에 화면은 나오는데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거나, 송출 소리가 겹쳐 하울링이 생기는 등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협회 내부에서는 교육을 통해 송출에 어려움이 없도록 대비하고 또 준비했지만, 제22차 작은도서관 정책포럼에서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분명 리허설 때 조정했던 소리 설정값이 달라져서, 행사 시작 시 처음 몇 분 동안 소리가 제대로 송출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패널들의 말소리가 앞에 놓여진 마이크를 통해 입력되어 출력되어야 하는데, 마이크가 아닌 노트북으로 소리가 입력됐기 때문입니다. 패널과 멀리 있는 노트북으로 소리가 입력되다보니,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듣는 사람들은 패널들의 말소리를 듣긴 커녕 노트북 근처의 잡음만 듣게 됐습니다. 설정값을 고쳐 제대로 입/출력을 조정했지만, 협회는 이번 일을 계기로 '소리'에 대해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유튜브 송출 시 상황은 언제나 바뀔 수 있습니다. 유연성과 순발력이 필요합니다.



▶ 제22차 작은도서관 정책포럼 웹자보



▶ 제22차 작은도서관 정책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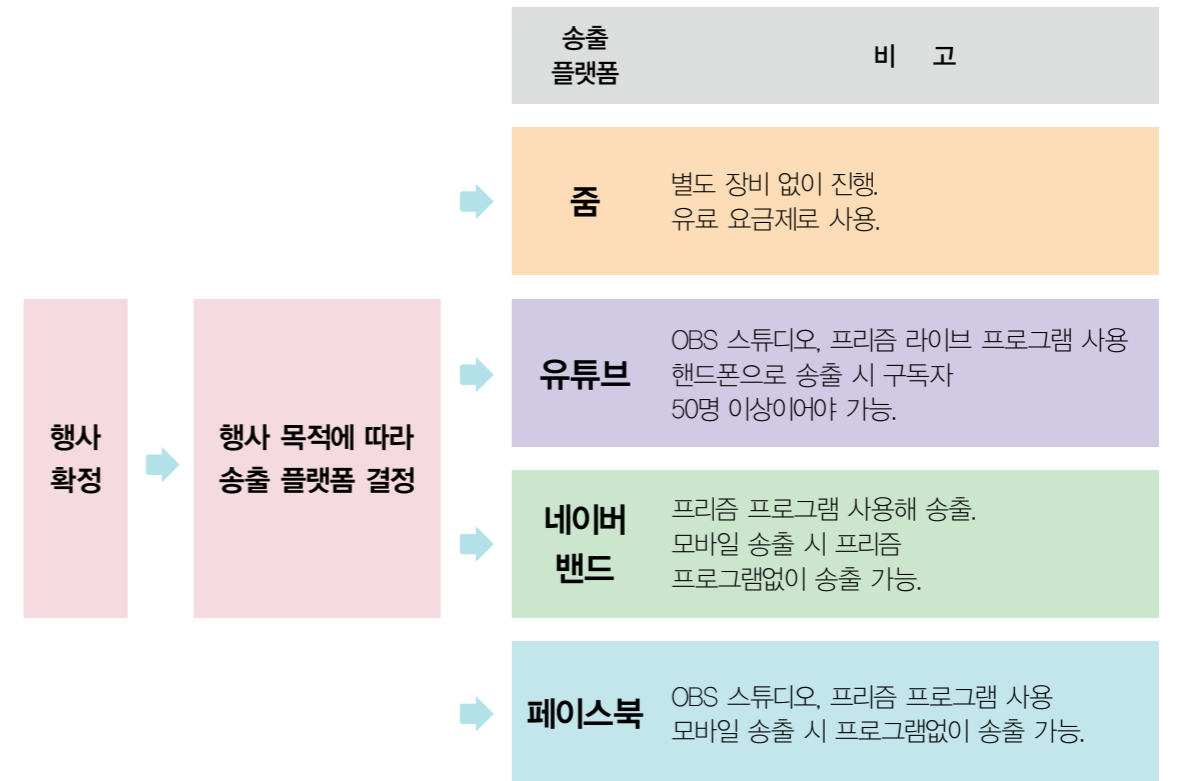
(3) 양방향 소통이 필요할 때는 줌을 이용하자! 제23차, 제24차 작은도서관 정책포럼

제23차, 제24차 작은도서관 정책포럼은 유튜브가 아닌 줌으로 진행했습니다. 당시 코로나도 너무 심해진 터라 대면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했고, 유튜브보다는 줌을 통해 여러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소통하면 좋겠다는 의견에 따른 것입니다. 익숙한 줌이어도 준비는 필요합니다. 줌으로 진행할 경우, 먼저 일정이 정해 지는대로 웹자보나 포스터 등 홍보물을 제작합니다. 그리고 사전신청 받을 폼을 만들어 홍보물과 함께 공유, 배포합니다. 행사 전날에는 미리 줌 회의실을 예약하고, 사전신청자들에게 예약한 회의실 주소와 내용을 문자로 보냅니다. 당일 오전에도 사전신청자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줌에 참여하는 패널들에게는 30분 일찍 접속을 요청해서 화면 공유, 소회의실 개설 등 리허설을 진행합니다.

TIP!

행사 시작 전, pc로 음악을 재생시켜 놓고 [화면 공유] - 공유할 홍보물 선택 - 하단의 [소리 공유] 체크 - [공유]하시면 내가 공유하는 음악과 홍보물이 참가자 모두에게 공유됩니다. 그리고 각 비대면 플랫폼에 따른 준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비대면 행사 준비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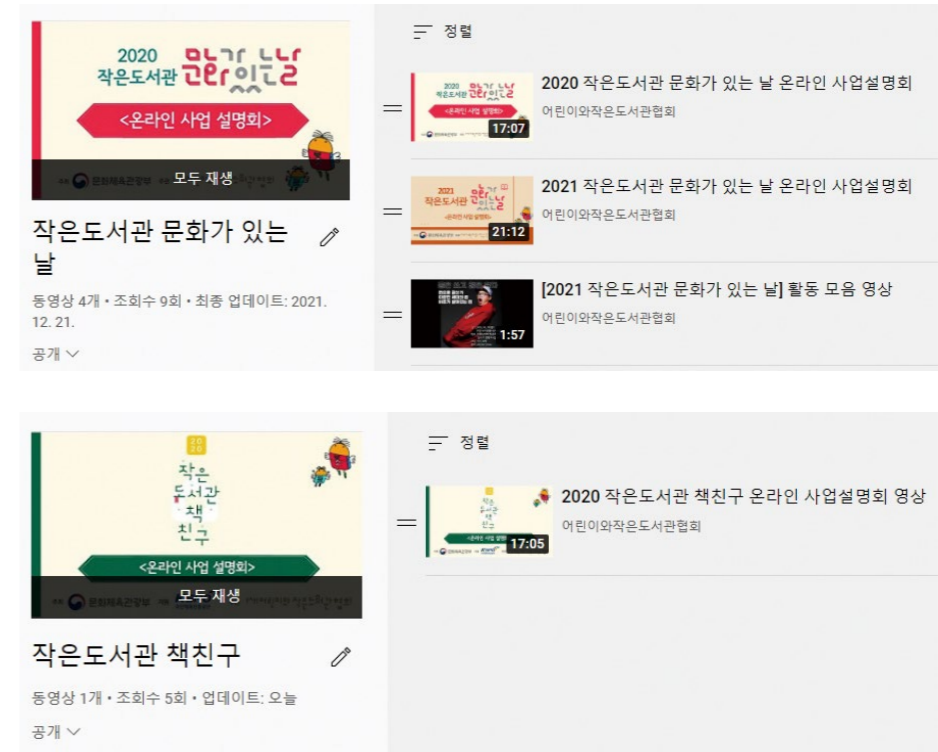


▶ 제23차, 제24차 작은도서관 정책포럼 웹자보

2.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작은도서관 책친구

2020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과 작은도서관 책친구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당초 기획했던 사전교육 워크숍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워크숍 장소 대관을 취소하고 사전교육 워크숍을 대체하기 위해 온라인 사업설명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사업설명회 영상은 협회 유튜브 채널에 탑재하고 사업에 선정된 도서관에게 배포했습니다.

2021년 역시 마찬가지로 온라인 사업설명회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온라인 사업설명회 뿐만 아니라 역량강화 워크숍, 최종공동연수회 등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하는 행사에서 협회는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통해 주체적으로 진행에 임할 수 있었고, 비대면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 노하우를 더 수월하게 알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책친구 지원사업 온라인 사업설명회 영상을 협회 유튜브 채널에 탑재한 모습

현장 실사를 통해 직접 작은도서관 현장을 만나던 것이 코로나19로 막히자, 협회는 네이버 밴드를 개설, 운영했습니다. 사업선정 도서관들과 문화예술전문가, 협회는 밴드를 이용해 사업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작은도서관 활동을 공유했습니다.



▶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책친구 밴드 개설 및 운영

2021 작은도서관 책친구 지원사업 최종공동연수회 때는 줌으로 진행하던 중, KT의 인터넷 장애로 연결이 끊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KT 인터넷을 사용하는 협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갑작스럽게 줌이 종료됐고, 협회 계정이 호스트인 상태라 혹시나 줌이 종료됐을까봐 조마조마하며 재접속했습니다. 다행히 회의

실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서 이후 일정을 무사히 소화할 수 있었지만, 비대면이 모든 일의 해결책은 아니라는 사실을 실감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같은 경우를 대비해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야하는 필요성도 느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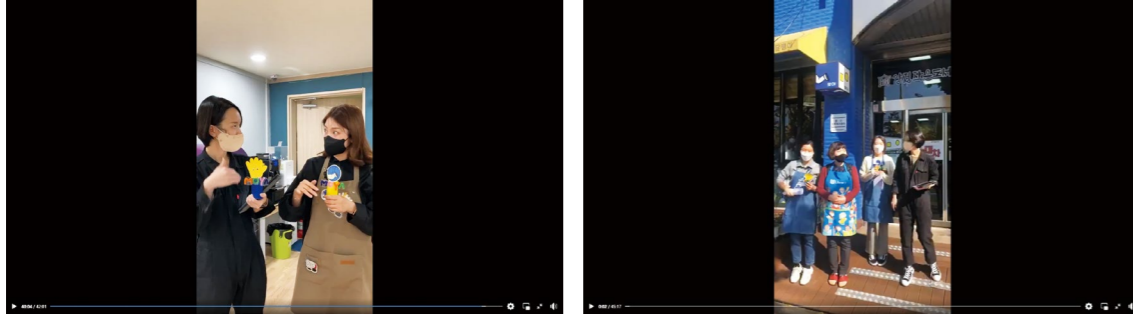
3.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작업실 속 모야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작업실 모야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사전회의, 설명회, 워크숍, 살롱 등의 모든 행사가 거의 비대면으로 진행됐고, SNS를 통해 소통했습니다.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작업실 모야는 도서관에서 대면으로 활동하는 작업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도서관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달랐기에, 담당자인 오른손들의 고민이 많았습니다. 수많은 고민 끝에 현재는 비대면으로 예약 신청을 받아 작업실을 이용하게 하는 등 융통성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1) 모니터링 현장라이브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작업실 모야는 현장모니터링을 진행합니다. 다른 도서관의 모야를 보고 싶어하는 요구를 담아 일부 도서관의 모습을 페이스북 라이브로 소개했습니다. 간단한 장비를 이용해 진행했는데, 모바일의 경우 삼각대 또는 셀카봉, 그리고 스마트폰만 있으면 됩니다. 페이스북 계정에서 [게시물 만들기] - [라이브 방송] - [라이브 방송 시작]을 누르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장비가 간단한 만큼 높은 퀄리티를 기대하긴 어렵지만, 기대보다 화면의 질이 좋고, 실시간으로 역동적인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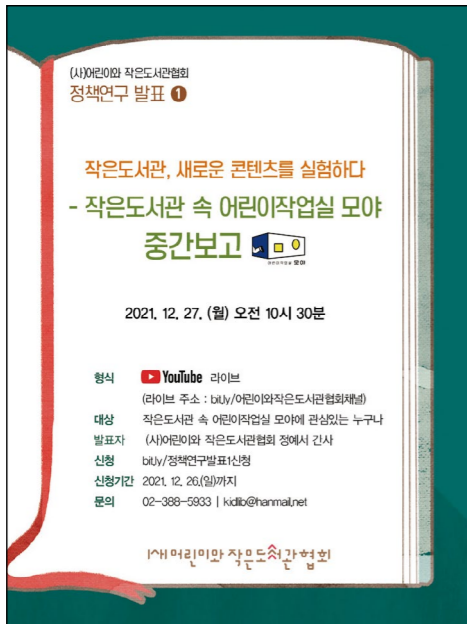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페이스북 라이브의 경우 누구나, 어디서나 쉽게 온라인으로 송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이 아닌 PC로 송출할 경우,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촬영 장비와 송출 프로그램을 이용해 라이브가 가능합니다.



▶ 페이스북 라이브 장면

또한,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작업실 모야는 페이스북 페이지, 인스타그램, 브런치 등을 통해 다양한 소통과 발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시작된 사업인 만큼,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활발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각 플랫폼의 목적에 맞게 내용을 다르게 해서 게시하고 있으며, 플랫폼을 모두 연동해서 연결이 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2) 정책연구 발표



2021년 12월에 진행한 정책연구 발표는 그동안 진행한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작업실 모야' 사업을 정리한 내용으로 진행했습니다. 유튜브 라이브로 송출했고, 진행하면서 사전에 받은 질문과 채팅창에 올라오는 이야기를 토대로 실시간 소통을 했습니다. 송출은 OBS 스튜디오를 이용했고, 발표자가 두 명이라 소리가 겹치지 않게 믹서를 사용했습니다. 송출 후, 당일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을 비롯해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협회 유튜브 채널에 라이브 영상을 탑재했습니다.



▶ 정책연구 1 '작은도서관, 새로운 콘텐츠를 실험하다 -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작업실 모야 중간보고' 유튜브 영상 QR 코드

3)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작업실 모야의 다양한 플랫폼

플랫폼	페이스북 페이지	인스타그램	브런치
내용	작은도서관 모야의 작은 손 작업물 내용	작은도서관/시립도서관/어린이도서관 모야의 일상	모야의 탄생 스토리를 담은 매거진
주소	http://naver.me/xtW7jKda	https://www.instagram.com/moya.at.library/	https://brunch.co.kr/magazine/moyainilibraries
QR 코드			

10. 청주시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비대면 진행

협회는 2021년 청주시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용역을 책임지는사회문화재단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연구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는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협회 회원 및 청주시 작은도서관 운영자분들과 공유했고, 라이브 채팅창을 통해 활발한 소통을 했습니다.

송출 관련해서는 처음 가보는 장소라 어떤 장비를 가져가야 할지, 어디에 자리를 잡고 송출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장소는 평소 송출하는 공간보다 컸고, 참가자들의 자리를 고려해 캠코더를 설치해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을 파악하지 못한 탓에, 중간보고회 때는 송출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라이브 참여자들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후 협회는 중간보고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반의 준비를 갖췄습니다. 청주시의회에 있는 믹서에 장비를 연결해 소리 부분의 오류를 잡았고, 장비도 미리 위치를 고려하고 세팅값을 맞추는 등 여러 가지를 보완한 덕분에 최종보고회 때는 차질 없이 잘 끝낼 수 있었습니다.



▶ 청주시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중간보고회/최종보고회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먼저 실험하고, 모두와 공유하는 비대면

코로나19 이후, 협회는 대면과 비대면을 넘나들며 끊임없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 필요한 플랫폼이 다르고 준비해야 하는 것도 달라서 어느 것 하나 쉬운 건 없지만, 조금 더 협회의 소식을 외부에 알리고 협회 회원들과 소통하는데에 중심을 두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다만 협회는 서로 격려하고 연대하며 앞으로의 1년을 또 준비하려 합니다. 또한 협회가 여러 시도를 하며 코로나19 시대를 지내온 것처럼, 이번 비대면 사례를 통해 작은도서관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시도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먼저 실험하고, 공부해서 작은도서관들과 방법을 공유하고 만나는 협회가 되겠습니다.





‘좌파’로 삼시다

도서평론가
이권우

‘좌파’로 삼시다

도서평론가 이권우

얼마 전 동네주민들과 긴 기간 함께 한 강의를 끝마쳤습니다. 자그마한 책자를 펴낸 다음 조출한 책거리를 열었지요. 함께 책을 읽고 글을 쓰다보니 서로를 깊이 알게 된지라 오랜만에 격의 없이 어울렸습니다. 흥겹게 대화가 이어지다 어떤 분이 저보고 좌파여서 좋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업하면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 농으로 “그래요, 저는 좌파예요”라고 했던 말을 기억하고 한 말이었습니다. 걸으려는 허허, 대머 웃었지만, 순간 무척 부끄러웠습니다. 제 삶을 되돌아보건대 어찌 좌파라는 말을 함부로 붙일 수 있겠습니까.

이미 식상한 말이 되어 버렸지만 좌파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강고한 자본주의 질서를 박살 내버리고, 인간다운 삶의 가치가 실현되는 새로운 체제를 실천적으로 구현해나가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잖아요. 홉스 봄의 말대로 ‘극단의 시대’였던 20세기 세계사를 장식한 무리입니다. 혁명, 계급, 천재, 우애, 연대, 투쟁, 희생이라는 파생어와 어울리는 말입니다. 그런데 고작 책이나 읽고 입방정이나 떠는 사람이 좌파라는 말을 참칭했으니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언제 처음 작은도서관을 찾아갔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네요. 아마도 강의를 요청받아 발길이 이르렀을 터입니다. 기억에 남는 것은 ‘이름값’ 한다는 거였죠. 작았습니다. 도서관이라기보다는 서재라고 말하는 게 나을성싶었습니다. 모인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 그래도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마을 사람이 응기종기 모여앉아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고, 강의를 끝나자 근처 식당에서 배달한 먹을거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끝으로 차 한잔 마시고 나오면서 마음에 훈기가 가득했더랬습니다.

작은도서관 운동을 하는 분들을 만나면서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늘 혼자 책을 읽고 잘난 체 하며 글을 쓰고 방송을 하고 책을 펴냈을 뿐입니다. 그리고 여력이 있으면 책으로 성장하는 공동체를 위해 미력한 힘을 보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상을 늘 그렇게 사는 분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부끄러울 수밖에요. 거창하게 혁명을 말하는 좌파라는 말은 이제 버려졌지만, 문화로 이웃과 교류하고 함께 성장하며 더 나은 공동체를 꿈꾸는 작은 좌파를 만났다는 감동을 받은 셈입니다.

서점을 살리자는 말이 무성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우후죽순 생겨나더니 이제는 마구 문을 닫습니다. 죽어가는 것은 살려야 합니다. 김해에 있는 작은 서점과 인연이 깊어 자주 강의를 맡으면서 작은도서관과는 다른, 동네서점의 가능성을 엿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서점을 살리자는 말이 불편합니다. 공공성을 내세우며 오랫동안 묵묵히 마을공동체의 문화거점으로 활약한 작은도서관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아서입니다. 왜 우리는 공공성보다 상업성을 내세운 곳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는 걸까요? 더 놀라운 것은 정작 작은도서관쪽 분들은 섭섭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원해주면 고맙고, 아니면 우리끼리 살아내 보겠다는 패기가 느껴집니다.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치며 단련되었기에 이리도 배포가 크다는 말입니까?

메타버스라는 말이 유행합니다. 나는 아직 마을버스 타는데, 메타버스는 또 뭐냐, 라는 아재개그가 터져 나올 만합니다. 세상을 늘 뼈뺌하게 보는 나는 이 말이 입에 오르내리자마자 누가 또 돈벌려고 난리를 치는군, 이라 했습니다. 새로운 용어가 유행하면, 그걸로 이득을 보는 집단이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도나도 이 버스를 타야 한다고 난리입니다. 기술발전과 이에 따른 융합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그 자체를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거 아닐까요? 너도나도 디지털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난리 칠 때 휩쓸리지 않고 곳곳하게 근본가치를 지켜나가는 집단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세상이 온통 디지털화하고 있습니다. 낡은 사람이라 그런지 어찌 나는 사막의 풍경이 떠오릅니다. 단 하나의 풍광만 펼쳐지는 곳을 일러 사막이라 한다면, 지금 우리는 디지털 사막의 공간으로 발을 딛는 셈입니다.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도도한 문명변화의 물결은 막아낼 수 없다는 걸. 하지만 문화영역은 다릅니다. 정치나 경제가 승자라는 말로 수식되는 집단의 독점이 통용되는 곳이라면, 문화영역은 옛것과 새것,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공존하는 곳입니다. 만약 문화마저도 승자의 문화가 지배한다면 그곳마저 사막이 되고 맙니다. 아무리 메타버스로 갈아타야 한다고 떠벌여 대더라도 우리는 메타버스 ‘도’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일한 지배가 아니라 다양한 공존의 장이 바로 문화이며, 도서관이니까요.

사막에 필요한 곳은 오아시스입니다. 앞으로 작은도서관은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할까요? 단일한 것이 지배하는 사막에 작은도서관이 웅달샘 역할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우리 이웃들이 편안하게 찾아와서 메마른 정서의 목을 축이는 곳, 세상에 시달리다 잠시 와서 책으로 망명을 떠나 안락함을 누릴 수 있는 곳, 바쁜 부모 탓에 사랑의 손길을 받지 못하는 아이가 안심하고 울 수 있는 곳, 책으로 교양과 지식을 쌓으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 나만 잘살면 된다는 세상에 판죽을 걸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꿈꾸는 사람들이 함께 고민하는 곳. 거창하게 오아시스도 아니고 그저 작게 웅달샘으로, 하지만

여기서 받아먹은 한 컵의 물이 삶의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곳 말입니다. 슈마허의 말대로 작은 것은 아름다운 법입니다.

따지고 보면, 지금껏 해온대로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무에 새삼스럽게 포장하고 수식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남이 하라고 해서 한 적 없고, 돈과 명예를 위해 한 적 없습니다. 이웃과 더불어 성장하고 더 나은 세상을 꿈꾸어 오지 않았습니까. 나만 잘 알고 잘난 척하려고 하지 않았고 누구나 두루 읽는 사람이 되어 비판적인 시민이 되길 바랐잖습니까. 그러려고 함께 읽고 토론했고, 책의 현장을 찾아가고, 작가나 저자를 불러 이야기를 들었고, 책에서 비롯한 다양한 문화를 공유해왔지요. 의미의 소비자가 되지 않고 창조자가 되려고 글 쓰는 수업을 했고, 이런저런 결과물을 소책자로 내기도 했잖아요.

다른 무엇보다 ‘작은’이란 낱말을 포기하지 않았잖습니까. 모두가 큰 것이 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적에 그런 것들이 놓친 것을 소중히 여기려고 작은 것을 고집했지요. 커지면 독점하고 군림하려 드니, 함께하고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작은 것을 지켰지요. 큰 것이 된다는 것은 돈의 가치를 우선한다는 뜻이니, 세상의 또다른 가치를 지키려고 작은 것을 내세웠지요.

아, 말하다보니, 당신들은 정말 ‘좌파’ 이십니다그려. 입만 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 부끄러워할 적에 작은도서관 운동가들은 그 삶을 온몸으로 살아왔네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요? 지금처럼 ‘좌파’로 살아주십시오. 모두가 돈과 권력에 미쳐나갈 적에, 남을 짓밟고 나만 살겠다고 발버둥 칠 때에, 오로지 디지털매체가 우리를 신세계에 데려다 줄 것처럼 난리를 부릴 적에 지금처럼 묵묵히, 작게, 끈질기게, 배포 있게 살아남아 웅달샘이 되어 주세요. 내가 못하는 짓을 남에게 미루는 만큼 부끄러운 일은 없는 법이지만, 가장 당당한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좌파’로 남아 이 천박한 세상에 비옥한 문화의 이야기가 끊이지 않게 해주세요.

지름길을 알려드리지 못하고 멀고 험한 길만 보여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걸어온대로 내디다 보면 마침내 뜻을 이루리라 믿습니다.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전하면서 글 마칩니다.

안녕, 작은도서관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이사장 백영숙

안녕, 작은도서관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이사장 백영숙

안녕이란 ‘어제를 묻고 오늘 환해지는 일’이라고 《우리는 안녕 / 글 박준 / 그림 김한나 / 난다》그림책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안녕한지를 묻는 것이 참 어려운 인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잠잠해지지 않는 코로나19의 위력으로 모두가 움츠리고 경계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도서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람이 사람을 만나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역동으로 여러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런 것이 오히려 해가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나 작은도서관들은 작은 공간 안에서 힘들어도 서로 부대끼며 여러 일을 도모하고 나누는 정으로 한 걸음 두 걸음 걸어왔는데 모든 것이 막혀버린 2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어디보다 힘든 시간들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작은도서관들의 저력을 이런 위급하고 답답한 현실 속에서 다시 보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용자와 직접 만나지 못하니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찾아내고 배워서 온라인으로 책을 읽고,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책을 전하는 일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민간사립작은도서관은 인건비는 고사하고 기본 운영비조차 없어 후원금이나 회비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렵게 운영되어지는 우리들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코로나19라는 그 큰 산을 우리가 되어 넘어가고 있습니다. 산의 높이가 얼마일지, 봉우리가 몇 개가 남았는지조차도 알 수 없지만 손을 잡고 토닥이며 넘어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위로 받고 싶었습니다.

작은도서관의 일이라면 늘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는 분들의 글을 받아 읽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책임은 문화를 만들기에 앞장서고 계시는 책임은사화문화재단의 안찬수 처장님, 작은도서관 지기들의 스승님이라 불리며 어떤 강연 요청에도 응해주시는 이권우 작가님, 내 머릿속에서 일어난 복잡스러운 일들을 다정히 알게 해 주신 신성욱 작가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지지해주시고 응원해 주신 글들을 모아 애쓰고 있는 작은도서관인들에게 잘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협회의 자랑인 작은도서관 웃는책의 김자영 관장님, 선도적인 실험과 열정으로 도서관 운동에 진

심하신 담작은도서관 김성란 관장님의 글들은 우리 작은도서관들이 이 비대면 시대에 어떤 모습과 활동들로 견뎌낼 수 있었는지 알려주는 좋은 사례로 남겨질 것입니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작은도서관의 힘은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네에 가장 가까이 있는 도서관이고, 우리 가족이 이용하고 가꾸는 곳입니다. 우리 동네에 있는 가장 안전한 곳이 되어 함께 이 어려운 산을 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에서 어제를 묻고 오늘 환해지는 ‘안녕’이란 인사를 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도서관이아름답다 시즌2 기금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정책연구2
작은도서관, 코로나 시대를 관통하다

발행일 2021년 12월 31일
지은이 김성란, 김자영, 박현진, 백영숙, 신성욱, 안찬수, 이권우, 이은주
발행인 백영숙
디자인·제작 디자인센터 산 032-424-0775

주소 040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가길 8-7, 2층
전화 02-388-5933
팩스 02-388-5922
이메일 kidlib@hanmail.net
홈페이지 www.smalllib.org

비매품

- ※ 이 책은 (재)도서관문화재단 씨앗에서 조성한 '작은도서관이아름답다 시즌2 기금' 으로 만들어졌습니다.
- ※ 이 책의 저작권은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